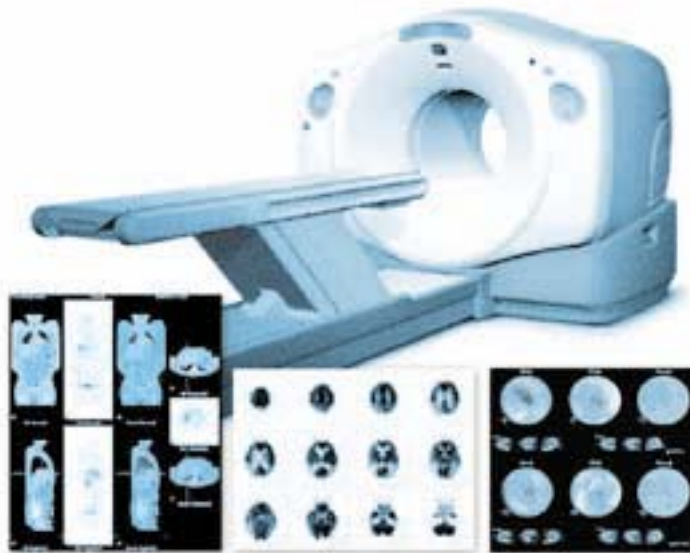


## · 목 차 ·

- 2 포커스 I  
강신영 교수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3 포커스 II  
아주대병원, 최첨단 영상장비  
PET CT 도입
- 4 의학 리포트 I  
조혈모세포이식 300례 개가
- 6 진료교실  
뇌졸중, 경미한 증상이면 안심  
해도 된다?
- 7 선인재 칼럼 균형과 조화
- 8 나의 연구 나의 테마  
환경과 정신분열증의 발병
- 9 잊을 수 없는 환자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 10 병동클릭 9층 동병동
- 12 첨단의학의 현장 - 내시경 III  
부인과 내시경 수술
- 13 내가 꿈꾸는 의료인  
나의 능력을 어디에 쓸 것인가
- 14 음식 속 건강 癌과 음식
- 15 우리 병원 어떻습니까  
우리 집으로 찾아오는 하안 천사들
- 16 의학리포트 II  
요척추질환,  
척추 전방 최소 침습수술 유용
- 17 이라크에서 온 편지  
亞洲人의 이라크 도전기
- 18 장기가 좋은 사람입니다  
간이식의 절차
- 19 AMC NEWS
- 24 건강 Q&A - 방사선방출의 영향
- 25 스포츠 의학 테니스 엘보
- 26 나의 건강상식은? 구강건강
- 27 협력병원 탐방 평택중앙병원
- 28 의료원발전 후원내역
- 30 전문클리닉 소식
- 31 진료시간표



## 최첨단 영상기기 PET CT 도입



아주대학교병원은 핵의학 최첨단기기인 PET CT를 도입하여 11월 중순부터 가동합니다.

조기 검진의 무엇보다 대두되는 이때, 환자 분들의 욕구에 맞춰 도입된 PET CT는 단 1회의 검진으로 암조직을 조기 발견할 수 있으며, 뇌 및 심장 질환의 진단에도 탁월한 기능을 발휘하는 첨단영상 장비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아주대학교병원에 도입된 PET CT는 기존 PET 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우수한 장비로, 약 20분 정도면 전신의 암 평가가 가능한 최신 의료장비입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PET CT의 도입으로 기존의 장비와 함께 진료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완벽한 첨단 의료장비의 구축으로 환자 진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강신영 교수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영 교수의 정년퇴임식이 아주대 정형외과학교실 주관으로 10월9일 목요일 신라호텔 다이내스티홀에서 이수성 前국무총리 내외, 오명 아주대학교 총장, 김광태 병원협회 회장, 가족, 정형외과학회 원로 교수, 동문, 동료, 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오명 아주대학교 총장은 『퇴임 이후에도 아주대학교 발전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실 것을 기원』했으며, 이성낙 아주대 석좌교수와 강응식 前대한정형학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변함없이 후학양성과 의료계 발전에 남다른 열정이 이어지길 부탁한다』면서 정년퇴임을 축하하며 아울러 건강을 기원했다. 또한 이날 시인 마중기 교수는 강신영 교수를 위해 지은 「현세의 가을」이란 시를 헌정했다.

이어 강신영 교수는 그동안 고마운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대학병원이 변해야 우리 의료계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제목의 퇴임 소감을 발표했다.

아주대학교는 강신영 교수의 업적과 공로를 기려 2003년 8월31일 정년퇴임과 함께 9월1일 정형외과학교실 명예교수로 임명했다.



# 아주대병원, 최첨단 영상장비 PET CT 도입

**아**주대병원이 오는 11월13일 목요일 오후 2시 암 진단을 위한 첨단 의료장비, PET CT(General Electric Co, Discovery ST+8 slice CT)의 가동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PET CT는 말 그대로 양전자 단층촬영(PET)과 단층컴퓨터 촬영기(CT)를 결합한 진단 영상장비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단장비인 MRI, CT는 우리 인체의 해부학적 영상을 얻는 반면, PET은 세포의 생화학적 기능의 변화를 얻는 장비이다. 예를 들어, 암의 경우 MRI, CT는 어느 정도 형태를 이루어야 발견할 수 있지만, PET은 암이 형태를 이루기 전 생화학적 이상, 기능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암의 아주 초기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암이 초기에 발견할수록 생존율 향상 등 치료성적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유용한 장비라 할 수 있다. 이에 PET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암, 뇌질환 그리고 심장질환 등을 초기에 발견하는 첨단 장비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세포의 생화학적·기능적 변화를 통해 다른 부위에 전이됐는지, 어느 정도 악성인지, 항암 및 방사선 치료후 효과 여부, 또 재발됐는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질병의 조기진단과 치료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영상장비로 보급이 확산되고 있다.

기존 PET은 해상도가 낮아 병변의 정확한 위치나 주변 장기와의 관계 등을 명확하게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여 나타난 PET CT는 PET의 영상과 함께 CT 기능으로 병변의 위치, 크기, 모양 등 해부학적 영상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아주대병원에 도입된 PET CT는 GE사의 최신 기종으로, 기존 PET 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우수한 장비로, 약 20분 정도면 전신의 암 평가가 가능하다.

이에 핵의학과 윤석남 교수는 「이번 PET CT 장비는 암 등 난치성질환을 극복하는 최선적인 조기진단과 치료성적 향상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의료장비」라고 하면서 「PET CT 도입으로 환자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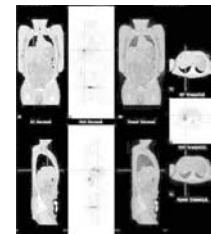
한편, 핵의과과는 13일 가동식과 함께 PET CT의 유용성에 관한 심포지움을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심포지움은 아주대 박경주, 서울의대 정준기 교수, 성균관대 김병태 교수, 연세의대 이종두 교수, 뉴욕 Mount Sinai의대 김천기 교수, 필라델피아 PVAMC(보훈병원)의 박찬희 교수의 발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 ● PET 임상적용 ●

### 종양 PET CT 영상

PET은 각종 암의 진단, 치료 방침 결정, 치료 효과 및 재발의 판정, 예후 평가 등에 이용될 수 있으며, 최근 암의 조기진단을 위한 건강검진에도 이용되고 있다.

폐암, 유방암, 두경부암, 대장·직장암, 림프종  
부인과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피부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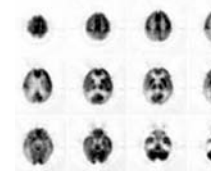


◀ 57세 남자 환자로 혈액 검사상 CEA가 증가되어 해부학적 영상 검사를 시행했으나 병변을 찾지 못함. Fusion PET CT에서 간 우엽에 국소 당대사 증가 소견이 관찰되어 간암으로 진단함.

### 뇌 PET 영상

PET은 각종 뇌질환의 진단, 치료 후 평가 등에 이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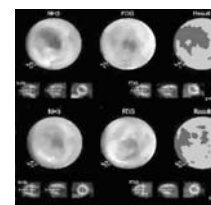
간질, 치매(알츠하이머병), 뇌졸중 등 뇌혈관 질환, 뇌종양, 파킨슨병, 정신과 질환 등



◀ 56세 여자,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PET 영상으로 양쪽 두정엽과 측두엽의 포도당 대사가 대칭적으로 감소되어 있다. 반면, 기저핵, 시상, 소뇌, 시각영역의 포도당 대사는 정상이다. (출처: UCLA)

### 심장 PET 영상

PET은 관상동맥 질환에서 생존 심근의 평가에 이용될 수 있다.



◀ 관상동맥질환의 평가를 위해 관상동맥성형술 전에 시행한 PET영상 (N-13 NH3, F-18 FDG)에서 LAD 영역에 혈류 대사 불일치 소견을 보여 생존 심근으로 진단되었으며 PTCA 후에 LAD 영역의 혈류가 개선되었다.



# 아주대병원, 조혈모세포이식 300례 개가



## - 간엽모세포 동시이식술로 치료 효과 높여 -

아주대학교병원 조혈모세포이식센터가 1995년 6월 악성 림프종환자에게 국내에서는 최초로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후 약 8년 만에 동종 및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술 총 300례를 시행하는 개가를 올렸다.

동종 이식이 108례, 자가 이식이 192례, 대상 질병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80례, 유방암 48례, 악성 림프종 37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25례, 위암 21례, 재생불량성 빈혈 1례, 만성 골수성 백혈병 17례, 폐암 10례, 난소암 5례 등이며, 2003년 현재까지 건강하게 생존하고 있는 환자는 전체의 68%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교과서적 생존율인 40~60% 보다 높은 것으로, 지난 여름 조혈모세포이식학회에서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다양한 악성 질환을 대상으로 생존율을 계산한 점을 고려해볼 때 증례의 수적증가보다도 이식받은 환자의 생존율과 완치율에 있어서 바람직한 결과라고



평가되고 있다. 아주대병원 조혈모세포이식술의 특징을 살펴보면 조혈모세포와 간엽모세포의 동시 이식술 적용, 수상돌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 시도, 완벽한 지지요법의 환경 구축을 들 수 있다. 간엽모세포 동시이식술은 아주대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서, 시술방법은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면서 동시에 공여자의 간엽모세포를 골수로부터 추출하여 체외에서 배양한 후 이식하는 것이다. 간엽모세포 동시이식술의 결과는 아직까지 전 세계적인 통계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본원에서 시행한 30여 차례의 이식 결과에 따르면 면역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이식편대 숙주질환, 간장염 폐쇄질환 등 이식에 관련된 치명적인 합병증을 성공적으로 줄이고 공여자의 조혈모세포가 환자의 골수 내에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간엽모세포 동시이식

술은 향후 거의 모든 동종 이식술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주대병원 조혈모세포이식센터는 이러한 조혈모세포이식술 이외에 세포를 목표로 직접 공격하는 이른바 면역 항암치료, 다시 말해 조혈모세포로부터 분화시킨 수상돌기 세포(dendritic cell)를 이용하는 치료법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임상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서 2001년부터 확대 진행 중이다. 체외에서 분화, 증식시키기 가 매우 까다로워 많은 기관에서는 중도 포기하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실험실 단계에 머물고 있는데 반해, 본 센터에서는 조혈모세포 이식술과 병용하는 면역치료의 일환으로 수상돌기 세포를 적용하고 있다. 아직 통계자료를 발표할 정도로 자료가 축적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는 매우 훌륭한 성적을 보이고 있으며, 조만간 학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제대혈(Cord blood)을 이용한 조혈모세포 이식술도 현재 실험실에서 연구 중이며, 바이오벤처기업인 라이프코드와 협력하여 다양한 실험들이 진행 중이다. 아직 넘어야 할 과정이 많이 남아 있는 제대혈-성인 조혈모세포 이식술의 한계점을 가까운 미래에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밖에도 아주대병원 이식병동 내 총 9개 무균실은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심지어 먼지까지도 24시간 공조 체계를 이용하여 걸러내고 있어 이러한 시설이 뒷받침해 준 결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의료진은 밝히고 있다.

한편, 아주대학교병원 조혈모세포이식센터는 조혈모세포이식 300례 돌파를 기념하여 (사)한국혈액암협회의 공동으로 지난 10월18일 아주대학교병원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겸한 환우회 모임을 조성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고홍길 국회의원(한국혈액암협회 회장), 김효철 아주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조성원 제1진료부원장, 박명철 제2진료부원장 등 환자와 가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기념식에서 김효철 의무부총장(조혈모세포이식센터장)은 『아주대학교병원 조혈모세포이식센터는 국내 4개 대학병원만이 등록되어 있는 국제조혈모세포이식센터(IBMTR)의 하나로서 최고의 치료혜택을 통해 지속적으로 아픈 이들과 가족과 함께 공유해 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 조혈모세포이식 300회 기념식에서 발표된 혈액암 환자의 투병기



이 자리에 서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동안 잊고 있던 지난 시간들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리듯 아팠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고통과 아픔이 상처가 되어 흉터처럼 제

가슴 깊은 곳에 남아 있었나 봅니다.

저는 대전에 위치한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였습니다. 감기 외에는 크게 아파본 기억이 없을 만큼 건강했는데, 진단을 받고 더이상 간호사가 아닌 환자가 되어 병원이 집인양 살았습니다. 사실 제 투병기가 보다는 혈액암 환자와 가족들의 투병기라는 말이 옳을 것 같습니다.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의 기도와 관심, 노력과 희생이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부터인가 저는 쉽게 피곤해지고 종아리가 붓더니 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멍이 잘들

고, 중환자실 간호사이다 보니 쉴 틈이 없고 피곤해 다리가 붓는 것이 종종 있는 일이라 당분간 쉬면 될 거라는 생각만 했었습니다. 절친한 선배가 제 종아리를 보고 빨리 진료를 받아보라고 했고, 근무복도 갈아입지 못한 채 그대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날, 제가 충격을 받을 것을 예상해서인지 담당선생님은 병실에 선배를 동석시키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백혈병이니 빨리 가족들에게 알려주세요』 저는 제 3자인양 『네』라고 답답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때 서야 선생님께서 매번 병실에 오셔서 머뭇거리시다 그냥 가시는 일을 반복하셨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동생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입원한 날, 어머니가 혈압으로 쓰러지셨다가 퇴원하신 날이었는데 차마 어머니께 연락을 직접 못드렸습니다.

5살이 어린 동생에게 의지한 채 수원에 올라와 아주대학교병원 중앙혈액내과에서 확진을 위해 골수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결과 병명은 MDS, 악성림프종의 일종인 골수이형성증이었다고 급성백혈병으로 진

전하려는 단계라 했습니다. 이 질환은 70대 남자에게 잘생기는 질환이었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제가 골수이식을 해도 생존율이 10~20%로 예후도 아주 나빴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게는 선택할 여유도, 슬퍼하고 고민할 틈도 없이 진단을 받고 2~3일 사이에 암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한 싸움!

이식병동으로 옮겨지고 가슴까지 내려온던 머리 카락을 잘라 가까머리가 되었습니다. 퇴근 후 병간호를 해주던 동생은 저를 즐겁게 해주려 애썼고,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 속에서 웃음을 찾았습니다. 싸움을 시작했으니 꼭 이겨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론상 형제 자매 중 유전자 일치율이 25%, 4명 중 1명인데, 저에게 언니와 동생 4명이 있었기 때문에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가 끝나고 골수이식에 들어가기만을 기다리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물론 친척들까지도 자신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유전자가 일치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뜻밖이라 순간 절망했지만 가족들과 친척들 앞에서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2001년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고 추웠던 겨울, 어머니는 고향에서 올라오셔서 제 병수발에 들어가셨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무릎 꿇어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1, 2차 항암치료가 끝나고 방사선치료에 들어서자 심한 오심과 구토가 심해져 6개월간 아무 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주치의셨던 김현수 교수님께서 새로운 치료법을 알려왔고, 60%가 일치하는 막내 여동생의 혈액을 조혈모세포 분리기를 이용해 분리한 후 간엽모세포와 줄기세포를 이식받게 되었습니다. 널리 상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어렵게 한 이식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골수가 생착되지 않았습니다. 수혈로 버티다가 다시 골수이식을 해야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이었는지 혈소판 수치의 상승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골수이식 후 2개월이 지나 다시는 나가보지 못할 것만 같았던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뿐, 10일만에 감기로 바이러스성 폐렴이 생겨 다시 입원하게 되었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어느날 깨어나보니 제가 2개월 간 혼수상태가 되어 중환자실에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상황을 이해하

기 어려웠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도를 뚫어 인공호흡기가 대신 호흡을 해주고 있었지만 숨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무엇보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의사 전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서야 그동안 제가 보살피던 중환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복력이 좋아지자 10층 서병동으로 옮겨져 재활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팔·다리운동은 물론 앉을 수 있도록 허리 근력을 키우는 운동, 기도를 막고 코로 숨쉬는 연습, 먹는 연습 등. 어머니는 이런 저에게 『새로 태어난 아기와 같이 너도 새로 시작하구나』 하셨습니다. 초여름의 향기를 맡으며 퇴원한 제게는 작은 꽃잎 하나, 잎사귀 한 잎, 흙 한줌, 하늘의 구름, 탁하게 느껴던 공기마저도 너무 상쾌하고 아름답고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어머니와 가족, 새로운 도전을 아끼지 않았던 의료진, 특별기도를 해주셨던 교회목사님과 성도님, 혈소판 수혈을 해주신 국군장병님들이 있었기에 제가 다시 태어났고, 이 아픔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현재 저는 제 주치의셨던 교수님께서 개원하신 병원에서 간호사로 다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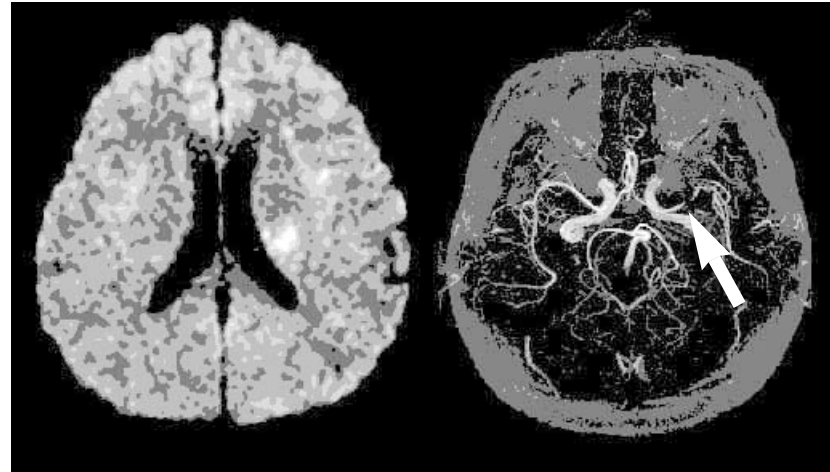
환우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몇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진을 믿고 따르십시오. 의료진 역시 여러분과 함께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생존률, 즉 확률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확률은 숫자일 뿐이니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셋째, 나 혼자 투병이 아니라 가족과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투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넷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힘들어도 웃으려고 많이 노력하세요. 마지막으로 신앙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환우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의지하고 기댈 곳이 필요합니다.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한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박숙경

## 뇌졸중, 경미한 증상이면 안심해도 된다?

### 경미한 증상인 경우 소홀히 대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아주대병원 신경과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1년 이상 계속 병원에 내원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는 매우 부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약과 외래 방문을 하는 경우는 전체 퇴원하였던 환자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러한 경향은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경우 두드러졌다. 이러한 경미한 증상을 갖는 환자들은 가벼운 증풍으로 알고 상세한 검사나 지속적인 투약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1〉 경미한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의 MRI 영상으로 작은 병변만이 관찰되나 (왼쪽 사진), 이 환자의 혈관에는 중대한 협착이 관찰되고 있다(오른쪽 사진 화살표).

### 과연, 경미한 증상이 있는 경우는 가벼운 증풍인가?

그러나 이들 환자의 상당수에서 혈관이 심하게 좁아져 있는 소견이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림1). 이들 환자의 많은 경우에서 「곧 좋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병원에 내원조차 하지 않는데 이렇듯 혈관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 증상은 경미하더라도 1~2주내에 심한 뇌졸중을 앓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더욱 문제가 된다. 따라서 경미한 증상을 보일 때라도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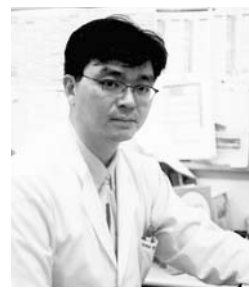
### 경미한 증상인 경우 재발이 더 적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러한 경미한 증상을 보인 환자들을 1년간 추적 관찰해 보았을 때, 경미한 증상을 보인 환자들 중 혈관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는 경우는 1년 내에 뇌졸중이 재발될 확률이 매우 높아 결국 사회생활로 복귀하지 못하고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회적 큰 손실인 뇌졸중

뇌졸중으로 인해 겪게 되는 고통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 가족의 고통이며, 더 나아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손실이다. 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퇴원 후 회복이 잘 되

지 않는 반면, 증상이 경미한 경우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회복되는 정도가 매우 커 향후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경우에도 MRI 영상을 통해 정확한 혈관상태를 검사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더불어 이러한 혈관 이상이 있을 때는 지속적인 약물투여와 함께 필요시 보다 적극적인 시술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방 오 영 교수 / 신경과학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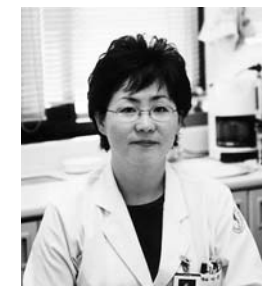
## 균형과 조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대학입시, 전공의 선발과 같은 연례행사가 있게 된다. 올해도 어김없이 11월5일에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되고 의과대학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지원 상황이 언론에 오르내릴 것이다. 특히 올해는 국가 경제가 어렵고 이는 취업난으로 이어지고 있어 청년 실업률이 무려 6.6%로 전체 실업률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이를 보면 평생직장이 보장된다고 믿어지는 의사가 되는 의과대학으로의 진학 열기는 더 뜨거워지리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더욱이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의학전문대학원제에 의해 취직을 준비 중인 대학 4학년이나 대졸 구직자들이 기업체 구직을 포기하고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눈을 돌리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입시학원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입시 열기가 뜨거워 다음카페(cafe.daum.net)에는 의·치·의학전문대학원 관련 동호회가 20여 개에 달한다고 한다. 이렇다면 과연 처음 취직대로 다양한 전공의 배경을 가진 의료 인력이 배출되어 우리나라 의학이 더욱 발전하게 되는걸까? 오히려 장점보다는 단점으로 거론되었던 이공계 전공자의 이탈 등 다른 학문의 발전을 방해할 여지가 많고 대학 입시가 학부 졸업 이후로 연장되는 효과 밖에는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 인력을 키우는데 정부로부터 투자가 없는 현실에서 전문대학원제도는 과정이 늘어나는 데 따른 비용부담만 더 커질 것이고, 현재도 청년 실업률이 높은데 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한 또 다른 실업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의사가 된 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일단 의사가 된 후에는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한 전공의 과정을 대개 밟게 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전공의 선발은 일부 인기 과는 경쟁률이 높은 반면, 다른 몇몇 과는 지원자가 아예 없어서 어려움이 많다. 개원가에서 소위 잘 나가는 과목이 무엇인지는 전공의 지원 상황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요사이 인터넷들은 정보의 흐름에 민감하다. 피부과는 인기 과에 속해서 전공의 지원자는 걱정을 하지 않을 정도이나 막상 전공의를 길러내야 할 수련병원에서 피부과 전문의의 수는 오히려 점점 줄고 있다. 이런 모순은 개원가와 병원의 피부과 진료 행위가 무척 다른 데에서 오는 당

연한 결과로, 원초적으로는 우리 나라 의료계의 전반적인 문제점에서 시작한다.

이렇듯이 대학 입시나 전공의 지원에 문제점이 많은 것은 균형과 조화가 없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균형(均衡)이란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른 상태이고, 조화(調和)는 대립이나 어긋남이 없이 서로 잘 어울려서 균형이 잘 잡힌데 자연계 대학입시는 의과대학으로 쏠려 있고 전공의 지원은 인기 과에 치우쳐 있으니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비단 대학입시와 전공의 선발뿐일까? 당장 신문만 봐도 세상 모든 일에 균형과 조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금년 말에 개봉될 영화 「매트릭스」 3편에서조차 기계와 인간, 가상과 현실의 대결 대신 공존을 강조함으로써 균형이라는 키워드를 주고 있다. 균형을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고 이는 영화에서 「네오」라는 구원자로 이루어지는데 현실에서, 특히 우리나라에는 「네오」가 있는 건지, 있다면 누구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이 은 소 주임교수 / 피부과학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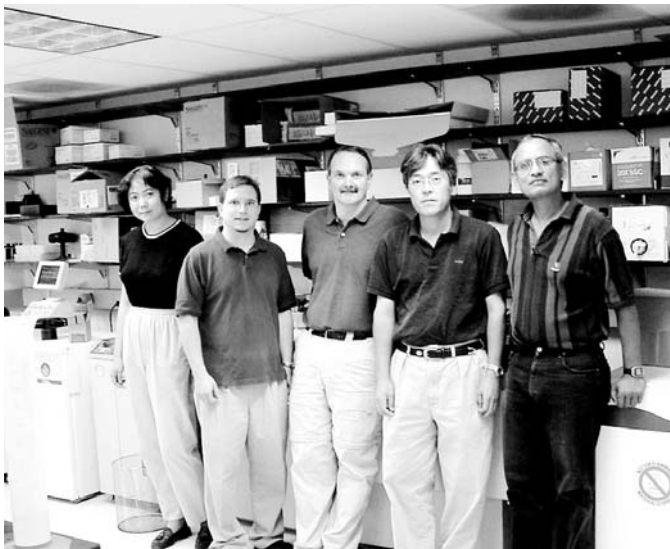
선인(善仁)이란 노자 도덕경에서 인용한 말로 인을 잘 베푼다는 뜻이다. 의과대학 지하 카페테리아에 있는 선인재(善仁齋)란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인생을 논하고 즐기는 장소를 의미한다.

## 환경과 정신분열증의 발병

지난 2년간의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일리노이 주립대학 정신과학연구소는 시카고에 있으며 지금까지 약 1,000편의 논문을 펴낸 코스타 박사가 책임자로 있는 정신질환에 대한 선도 연구기관이다.

이탈리아 태생으로 2차대전 후 미국으로 이주하여 평생을 뇌기능 연구에 바쳐온 그는 약 10년 전 현재의 연구소로 자리를 옮겨와 정신분열증 및 조울증의 연구에 집중하기 시작하였으며, 뇌조직이 짜여지는 모양을 결정하는 「릴린」이라는 물질이 정신분열증 환자의 특정 뇌세포에서 감소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 변화의 기전을 밝히는데 집중하고 있다.

7년 전 약리학회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그를 만나 연구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그동안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해온 나는 해외 학회 등에 참석할 때마다 코스타 박사의 연구를 눈여겨 보아왔다. 5년 전 신경과학회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와 친분을 가지고 있던 약리학교실의 광병주 교수와 함께 연구소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고 자연스럽게 연수지로 선택하였다.



▲ 시카고 일리노이 주립대 정신과연구소 랩구성원들과 함께(오른쪽에서 두번째가 노재성 교수).

연구소의 여러 실험실 중에서 그레이슨 박사의 분자생물학-유전학 실험실에서 연구하게 되었는데 이 실험실에서 지난 2년간 내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기본적인 실험 모델인 신경세포 1차배양 시스템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서 릴린의 신경세포내 조절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정신분열증 및 조울증의 대뇌이상의 기전을 연구했다.

정신분열증이 발병하는데 유전적 요소가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즉 부모나 형제자매 중에 한사람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 병에 걸릴 확률이 약 15% 정도로, 일반인구에서의 유병률이 1%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많은 연구자들이 정신분열증의 특정 유전자 변이를 찾는 노력을 계속해 왔지만 아직까지 분명한 유전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유전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도 질병 일치율(쌍둥이 중 한명이

병에 걸릴 경우 다른 한사람이 같은 병에 걸릴 확률)이 50% 정도인 것을 보면 유전자의 선천적 이상이 단독으로 정신분열증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정이나 환경 또한 정신분열증의 발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환경의 영향이 유전자를 어떤 방식으로 조절해서 정신분열증을 일으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의 주제가 된다.

구체적으로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사후 뇌조직에서 릴린을 조절하는 유전자의 메틸화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메틸화를 조절하는 방법과 효소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메틸화와 릴린의 분비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도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귀국 후에도 계속 연구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미국에 도착하여 한달이 안 되어 무역센터 테러가 일어났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전쟁과 불황으로 인해 어수선한 기간이었으며,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반미 시위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 질문을 받는 일이 많았다. 돌아올 즈음에는 위험한 곳으로 모든 가족을 데리고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나는 질문을 받곤 했다. 돌아보면 연구뿐 아니라 여러 가지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가족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좋은 경험이었다. 땅도 넓고 기본적으로 가진 것이 많고 보수적이지만 안정적인 나라에 대한 질투를 느낄 때가 많았다. 이제 돌아온 고국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려 한다.

노재성 교수 / 정신과학교실



##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랜 약물치료로 민둥머리에 마른 체형, 검은 피부, 지쳐보이지만 늘 자신있는 목소리, 깨끗한 모습으로 항암치료를 잘 견디어 내셨던 도천수 님. 대장암으로 힘든 투병을 하고 계셔서 자주 입원을 하시는 분이다.

귀에 익은 목소리 그 분의 목소리가 들리면 병동 간호사들은 「또 입원을 하셨구나」 한다. 어김없이 씩씩하고 명랑하게 「선생님들, 모두 몇분이야? 커피 한 잔씩 드려야지」 하시며, 사양을 해도 간호사 의사 모두에게 커피라도 대접을 하고 싶으신가 보다. 입원하는 그 순간부터 퇴원하시는 순간까지 늘 의료진들에게 맛있는 커피를 대접하신다.

모두들 「도천수 님이 안오시네? 완치되었나 봐!」하며 궁금해 할 정도로 한동안 그 분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뜨거운 햇살이 우리를 자극하는 7월 어느날, 응급실에서 급하게 병실 배정 요청이 올라왔다. 환자명을 확인하니 도천수 님이었다. 모두들 어쩔일까 걱정을 하며 기다렸다.

응급실 이동침대에 실려오신 도천수 님은 예전에 밝은 모습이 아니었다. 한동안 죽은 물론 물도 못드시고 토하고 그러셨던지 얼굴과 온 몸은 빼만 남아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본 나는 「이 입원이 이분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구나」하는 느낌이 스쳐지나갔다. 병실로 옮기면서 「안녕하셨어요? 저희를 알아보시겠어요?」하니, 대답대신 힘든 미소를 지으시며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보호자를 향해 「선생님께 음료수라도...」하셨다. 자신의 몸도 가누지 못하시면서 늘남에게 배부시고자 한다.

진통제와 수액 그리고 고통 속에서 한 숨도 자지 못할 때는 수면제에 의지하시면서도 병실에 들어서면 항상 음료수를 쥐어 주시며 들려주시는 말씀이 내 가슴과 코 끝을 찡하게 한다.

「혹 내가 살아 퇴원하게 되면 봉사활동도 하고, 내 남은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싶어요. 사람은 콩 하나라도 나



▲ 10층 서병동 간호사들과 함께 한 김혜경 간호사(왼쪽에서 두번째).

뉘 먹고 늘 베풀어야 해」 그분에게 많은 걸 받았지만, 그의 소원도 들어줄 수 없고, 걸어서 퇴원하게 할 수도 없는 지금, 단지 진통제와 수면제만이 내가 해줄 수 있는 전부임을 알고 계신지... 여전히 자신의 부탁을 아끼고 혼자 힘겨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안타깝다.

그분이 돌아가신다고 한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가시는 길에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분이 베푸는 일에 환하게 웃어드리고 고마워 하는 것일 것이다.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암과 백혈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환자들의 회복과 건강을 기원한다.

김혜경 간호사 / 10층 서병동

# 환자의 아픈 마음까지 간호하는 9층 동병동



**9층** 동병동은 신경과와 재활의학과 환자분들이 입원치료를 받는 병동이다. 쾌한 냄새와 우는 소리, 가래 뱉는 소리가 귀청을 울리며 하루가 시작된다.

치명적인 신경계 질환자가 대부분이며, 급성기에는 뇌졸중의 진행을 방지하기 위해 절대 안정을 꼭 지켜야하는 치료의 철칙이 있는 곳이다. 53병상의 마비 환자와 고령 환자 모습에 늘 눈을 떼 수 없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주사줄, 식사를 위한 코줄, 소변 배설을 위한 소변줄, 욕창 예방을 위한 자세변경 간호 등 직접간호가 절실히 필요한 환자가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보호자나 간병인이 꼭 상주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안정기를 찾은 환자라도 재활 치료를 받기 위해 장기 입원이 많고, 1층 재활의학과를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를 위해 물리치료실에 치료사가 상주해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

오랜 침상 생활에서 의자차로, 의자차에서 지팡이로 걸기 시작하면 서로 박수도 치고, 격려를 하기도 한다.

퇴원 후에도 보호자가 꼭 붙어서 간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부담감이 아주 높고, 보존적 치료가 요구되어 의료장치 설비가 어렵거나 환자 상태가 안좋을 때, 오랜 기간 환자를 봐 줄 요양기관의 부족 등으로 장기 입원을 요구하는 환자가 많다는 것이 다른 병동과의 차이점이다.

송충숙 수간호사를 비롯한 18명의 9층 동병동 간호들은 장기 입원으로 환자와 보호자가 많이 지쳐 있는 만큼, 늘 긴장되고 신경 쓰이는 병동 환경이지만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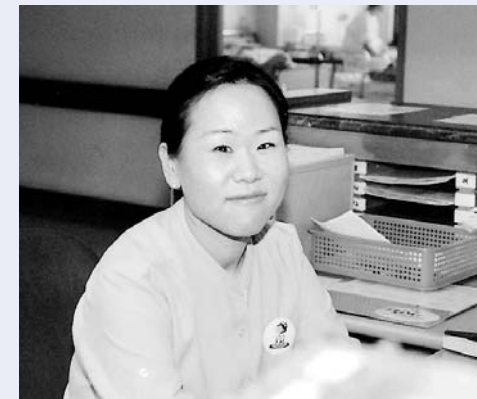
9층 동병동에는 간질 환자가 입원하여 간질의 양상을 검사하는 집중치료실과 수면다원검사실이 위치해 있다.



## 신경과 주인수 교수가 말하는 9층 동병동

최근 텔레비전의 한 광고와 같이 「9」자를 보면 나도 모르게 손이 가곤 한다. 병원에서 벌써 10여년 근무하면서 9동은 어느덧 고향처럼 푸근하게 느껴진다. 회진을 가면 늘 웃음으로 맞이하는 간호사들. 의사에게만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도 똑같이 성의를 다하는 모습이 언제보아도 아름답다.

9동은 다른 병동에 비해 중환자와 장기 환자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주로 신경계통의 환자들로 환자나 보호자들의 기대치가 높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므로 이들을 대하는 의료진들의 고충은 심하다. 하지만 18명의 우리 9동 천사와 신경과 식구들은 부드러운 손길로 그들의 이픔을 구석구석 어루만지면서 완치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한다. 환자를 치료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병동시설과 집중감시 치료실과 같은 특수 장비도 자랑거리지만, 그보다 환자의 고통을 보듬을 줄 아는 마음의 여유와 완벽한 일처리, 환자를 위한 부단한 노력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9동의 재산이요, 자랑거리이다.



## 김인순 간호사가 말하는 9층 동병동

입원 환자의 대부분이 고령의 분들이라 눈높이를 낮추고 목소리를 크게 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9층 동병동에서 환한 웃음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적절하게 검사 목적이나 퇴원약 설명을 잘해 줘서 인기가 많다는 김인순 간호사.

뇌졸중으로 ICU에서 전신회 온 환자와 보호자의 굳은 의지와 노력에 오히려 김 간호사가 힘을 얻어 힘들줄 모르고 간호를 하게 되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김인순 간호사는 「물에도 마음이 있어 긍정적인 말과 밝은 생각에는 아름다운 육각결정이 된다고 한다. 늘 힘든 생활이지만 병동 식구들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선생님들 모두가 지금처럼 밝게 서로 격려해 주며 노력했으면 한다」면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가 서로 믿고 격려하는 관계가 힘든 치료과정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원동력이기에 무엇보다도 「신뢰」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부인과 내시경 수술, 그 첨단의 현장에서

### 부인과 내시경 수술 - 복강경 수술, 자궁경 수술

내시경이란 말 그대로 몸 안의 어딘가를 렌즈를 통해 관찰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시경시술 방법으로는 위내시경이 있겠으나, 이외에도 몸 안의 구석구석을 내시경을 통하여 관찰하고 치료하는 방법이 요즘에는 매우 일반화되고 있다. 부인과 영역에서도 예외는 아닌지라 부인과 장기인 자궁, 난관, 난소, 골반경, 자궁내막 등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는 부인과 내시경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다. 특히 부인과 내시경은 자궁 및 부속기, 골반강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복강경 수술과 자궁내막을 볼 수 있는 자궁경 수술로 나뉘어지며, 그 용도는 이름에서와 같이 서로 다르나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시술 방법은 전신마취 상태에서 환자의 배꼽아래 부위를 약 1cm 정도 절개한 후 이산화탄소 가스를 복부에 삽입하여 기복상태를 형성한 후 양측 하복부에 0.5~1cm 크기의 투관침을 삽입, 골반강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대개의 진단이 가능하며 진단에 따라 곧바로 치료에 들어갈 수 있으며, 이 때의 치료는 내시경적으로 하게 된다. 자궁경 또한 전신마취 상태에서 자궁내막 안으로 자궁내시경을 삽입하여 직접 자궁내막의 병변 및 난관 개구부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다.

### 미용상 효과 및 합병증 적은 부인과 내시경 수술

개복수술에 비하여 첫째, 수술시간이 적게 걸리며, 수술시 절개부위의 출혈이 적고, 절개부위로부터 오는 통증이 감소된다. 또 수술상처 부위가 거의 보이지 않는 미용상의 효과 등이 있다. 둘째, 수술시 손이나 장갑이 복강내 장기에 접촉하지 않으므로 수술 후 장마비나 복강내 수술부위의 유착 등 합병증이 거의 없으며, 수술 부위 감염 및 수술 후 염증의 기회가 매우 적다. 셋째, 최신 첨단의 광학기계 및 레이저, 비디오, 모니터 등이 수술기법에 도입됨으로써 조작성을 확대해서 볼 수 있으므로 미세수술 및 불임수술에 이용이 가능하다.

### 불임 및 부인과 질환까지 적용

처음에는 난관 절제술 같은 간단한 술기에만 적용되던 것이 이제는 불임환자의 대부분에서 복강경 및 자궁내시경을 통하여 불임의 원인과 치료를 가능케하고 있으며, 난소, 난관 및 자궁의 양성신생물 및 자궁경부암에서도 복강경 수술을 통한 장기적출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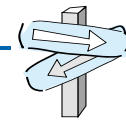
환자의 정확한 진단과 과거병력 체질 등이 부인과 내시경수술을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 3000례 돌파 머지않아

1994년 개원 이래 2003년 2월까지 아주대병원 산부인과에서는 2300여건의 복강경수술과 550여건의 자궁내시경수술을 시행하였다. 세계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불임 및 양성부인과 질환에 주로 적응증을 두고 있다. 수술시간은 60분 이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나, 질환의 종류 및 복강상태에 따라 그 이상의 수술시간을 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동안의 실적은 국내 산부인과학회 및 미국 복강경학회에 보고하였다. 아주대병원 산부인과 내시경팀은 지금까지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보아나온 첨단 의료의 현장에 서서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황 경 주 교수 / 산부인과학교실



## 나의 능력을 어디에 쓸 것인가

어머니 말씀으로는 내가 의사가 되겠다고 떠들고 다니던 게 5살 때부터 였다고 한다. 유난히 잔병을 많이 앓으시던 할머니가 5살 꼬마 눈에도 안쓰러웠는지 『할머니, 내가 이 다음에 커서 의사 되면 할머니 병 내가 다 고쳐 줄게』라고 말해서 기특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의사가 될 줄은 몰랐다고 지금도 빌 때마다 어릴 적 얘기를 꺼내신다. 지금도 당뇨와 관절염으로 고생하시고 계시지만 할머니의 병을 고쳐 드리지 못하고 있으니, 아직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어서 항상 죄송하기만 하다.

꼭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철없는 꼬마 때부터 죽자 사자 의사가 되려고 매달렸는지 모를 일이다. 어렸을 때 감기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병원에 들어오면 병원 냄새가 좋으면서 병원 소독약 냄새를 일부러 맡는다고, 코를 크릉꿨던 걸 생각하면 아마도 의사가 내 천직이 아니었을까 하는 건방진 생각도 해본다. 물론 의사란 직업을 내 평생의 업으로 정할 때 솔직히, 현실적인 이유가 아주 없었다고는 말하진 못하겠지만 가만히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의사란 직업의 그 모든 것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의사란 직업의 송고함, 희생, 치열함, 이 모든 것... 누굴 사랑한다면 이유가 없어야 한다는데...

살아 오면서 실패의 쓴 잔을 처음으로 맛 보게 했던 재수 시절에도 대학은 떨어졌어도 1~2등은 놓치지 않았다는 오만한 자존심으로 가득 찼던 난, 「일류대에 갈 거야」라는 생각에만 사로 잡혀 있었다. 힘든 재수 시절이 끝나 갈 무렵, 입시학원 국어를 담당하시던 선생님께서 하신 「공부를 잘한다는 게 최고이고 선택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하나의 능력일 뿐이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능력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잘 쓸 수 있을지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참 부끄러웠다. 난 그랬던 것 같다. 흰 가운을 입은 멋있는 내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의사의 꿈을 키우면서도 정작 그뻘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지 정말 의사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던 것 같다. 「그래 내가 남들에게 없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항상 감사히 여기고 그런 능력을 항상 최선을 다해 남에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자」라고 그 때 속으로 결심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요즘의 나를 생각해 보면 솔직히 자신이 없다. 정말로 그렇



게 살고 있는지, 정말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보고 있는지, 그분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내 자신이 피곤하다고 외면하진 않았는지 반성해 본다. 처음으로 환자의 숨소리를 청진했던 그 떨림, 학생 실습시절 수술 방에서 처음으로 힘차게 뛰는 심장을 만져 봤을 때의 그 몽글함, 나의 손을 처음으로 꼭 만져주었던 그 환자분의 따뜻한 손길.... 그런 처음의 느낌들, 그 때의 생각들을 잊고 지낸 것 같다.

잠 한 숨 못자고 당직을 선 다음날 아침 회진을 들고 있었다. 신경은 있는 대로 날카로워져 있었고, 그날도 평소처럼 무심하게 회진을 들고 있었다. 오늘 퇴원 예정인 환자 분에게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오늘 퇴원하셔도 되겠어요. 퇴원하셔서 술 안 드실 거죠?』 그렇게 늘 하던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오려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하며 70 연세의 환자 분이 어린 나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셔서 가슴이 뭉클했다. 솔직히 다른 중환자분 때문에 신경을 덜 썼던 환자 분인지라 죄송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면서도 전날 당직을 섰던 피곤함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퇴원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를 하시며 나에게 보여 주셨던 그 미소... 의사는 환자 들의 그런 미소를 먹고 사는 것 같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는다. 처음의 그 마음들을 되새기면서...

최 용 준 레지던트 / 내과 2년차



# 癌과 음식

각종 암의 발생에 음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문제를 생각할 때면 떠오르는 환자 한 분이 있다. 내가 전공의 시절 치료했던 비인강암 환자가 방사선치료를 받으면서 심한 황달 환자처럼 온 몸이 노랗게 변하는 것이었다. 놀란 나에게 그 환자는 베타 카로틴 때문이라고 털어놓았다. 외국에서 베타 카로틴(정제)을 이용한 암 예방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단편적인 정보를 얻었을 뿐인데도 그렇게 열심히 베타 카로틴을 섭취하려고 한 노력에 놀랐다. 내가 전공의가 끝 날 때까지 그 환자의 노란 얼굴은 나를 놀라게 하였고, 환자는 자신이 재발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은 베타 카로틴 덕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지금 그 환자가 어떻게 지내지는 알 수 없지만, 베타 카로틴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갖게 하였던 그 연구의 결과는 알고 있다. 그 연구에서 베타 카로틴(정제)은 암의 발생을 감소시키지 못하였으며, 흡연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암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이 보고되었다. 그 환자 분이 흡연력이 있었지만, 베타 카로틴 정제를 복용한 것이 아니라 야채를 통해 베타 카로틴을 섭취한 것이기 때문에, 2차 암의 발생 위험을 오히려 높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내가 학생 시절의 어떤 교수님께서는 김치의 매운 성분이 위벽을 자극하여 위암의 발생을 높일 수 있다는 가설을 믿으시고, 빨간 김치는 항상 물에 빨아서 드시곤 하였는데, 요즘 알고 지내는 연구자 한 분은 고추의 매운 맛을 내는 캡사이신이 암을 예방한다며 항상 많이 먹을 것을 권하시곤 한다.

각론적으로는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총론적으로 보면 비교적 확실한 결론이 몇 가지 도출되어 있다. 자연 상태 그대로의 음식물이라도 암 예방적인 기능을 나타낼 수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암 발생의 요인이 될 수도 있으며, 조리 방법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 지금까지의 거의 확실한 연구결과들만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야채와 과일을 골고루 많이 먹으라는 것이다. 모든 야채와 과일에는 공통의 또는 그 특유의 많은 항산화효소들과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어 암의 예방에서 중요하다. 대부분의 암 관련 단체의 권고마다 빠지지 않고 들어있는 내용이며, 암 예방에서 금연만큼이나 중요하다.
2. 섭취 칼로리 양을 줄이고 특히 지방 섭취량을 제한하라는 것이다. 정확한 기전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등 일부 암은 지방 섭취량과 관계가 있다.
3. 두부와 같은 콩 가공 식품은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할 뿐 만 아니라, 포함되어 있는 genistein 성분은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의 발생을 줄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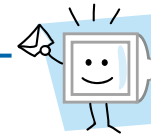
4. 고기를 불에 직접 구워먹는 것은 고기내에 발암 물질을 생성시킴으로서, 날것일 때는 없던 발암물질을 증가시킨다. 열에 의해 변형된 여러 성분 또한 발암과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다.
5. 적포도주는 포도 껍질에 있는 항산화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암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물론 최근의 보고에서는 적포도주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그와 더불어 많은 야채를 섭취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몸에 좋은 음식의 하나임은 분명해 보인다. 단지 그렇다고 알코올의 섭취를 적정량 이상 늘린다면, 이러한 좋은 점은 알코올의 부작용에 가려져 버릴 것이다.
6. 녹차의 항암 효과가 일본을 중심으로 많이 보고되고 있다. 녹차에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 효과를 보려면 하루에 최소한 10잔 이상을 마셔야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보통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음식물의 섭취는 약을 먹는 것과는 다르며, 생활 습관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을 통한 암의 예방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현대인의 생활은, 우리들을 점점 그 반대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점점 건강보조식품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에 의존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러나 결코 건강 보조식품이 자연산 음식과 똑같은 수는 없으며, 또한 항암제를 대신할 수는 더더욱 없다. 그럼에도 수많은 약용 식물과 건강 보조식품이 마치 항암제처럼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세계적으로 기능성 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은 고성장 산업의 하나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많은 건강보조식품을 접하게 될 것이다. 그 중 일부는 만병통치약의 얼굴을 하기도 하고, 일부는 대체의학의 얼굴을 하고 항암제처럼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란 매우 적어 그것을 얻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야채와 과일을 한 알의 영양제로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다. 건강하게 먹고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오영택 교수 / 치료방사선과학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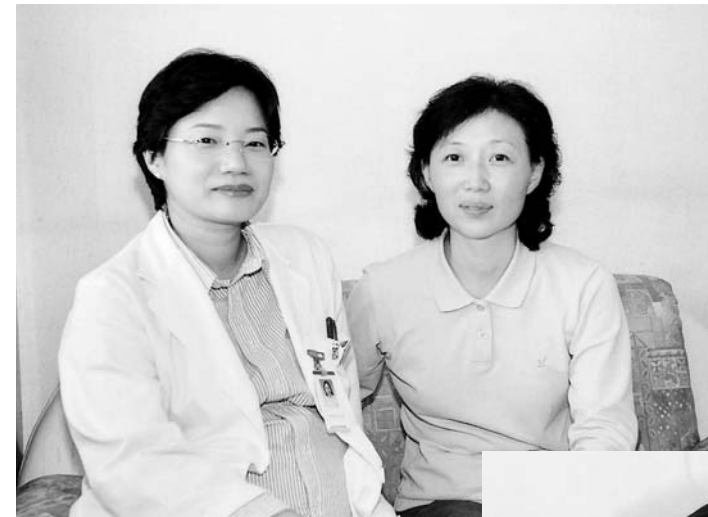
이주대학교병원 영양연구회에서 콩, 된장, 두부, 차의 종류와 효능, 야채류와 비타민, 김치와 젓갈 등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음식 속 건강」을 연재합니다. 영양연구회는 암 환자들의 치유를 위해 이주대의대 교원 등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치료방사선과 전미선 주임교수를 주축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 집으로 찾아오는 하얀 천사들

우리 집에는 매주 두 번씩 검은 가방(?)을 든 하얀 천사들이 오신다. 골다공증과 신장이 안 좋아 오랫동안 투병중이신 노령의 어머니를 위해 혈압 및 체온체크, 소변줄 교체 및 소독, 욕창 유무 확인, 피부상처 소독과 처치, 투약, 영양상담, 검사를 위한 혈액·소변채취, 독감예방접종 등의 여러가지 처치를 해 주신다.

입·퇴원을 몇 번씩 거듭하던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2000년 퇴원 당시 가정간호제도에 대해 처음 알았다. 퇴원 후에도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집에서 간호해야 하는 불안한 상황에서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담당의사의 지시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처치 및 지속적인 의



료관리를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합병증의 감소, 입원비용 절감, 환자와 보호자의 심리적 안정감과 만족감이 있을 것 같아 가정간호를 신청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가정간호를 받지 않았더라면 우리 어머니는 앰블런스를 타시고 몇 번은 더 병원신세를 지셨을 것이고 보호자인 나도 집과 병원을 오가며 더욱 힘이 들었을 것이다.

병원이나 집에서 똑같은 처치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의 환자라면 가정간호를 통해 집에서 받는 것이 환자나 보호자에게는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것을 체험하고 있기에 환자가 계시는 여러 곳에 가정간호를 많이 홍보하고 있다. 몇년 전 보다는 나아지셨지만 아직도 가정간호제도를 모르는 분들도 계셔서 안타깝다. 핵가족에 지병을 가진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이 시대에 가정간호라는 제도가 앞으로 많이 보급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의료보험 혜택의 횡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실 가정간호제도를 안다 하더라도 경제적 뒷받침이 약하거나 저소득층 노인이나 환자인 경우에는 의료보험 혜택의 횡수에 민감해 질 수밖에 없으리라.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무슨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고 세월이 흘러 가정간호사님과 끈끈한 유대감이 생겼다. 다음 환자를 위해 바빠 이동하시느라 마음편히 차한잔도 나누어 본 적이 없어서 어떤 때는 송구스럽기까지하다. 처음 가정간호의 인연을 맺었던 송종례 간호사님은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더니 가정간호 수간호사님이 되셨고, 조용하고 자상하신 김영신 간호사님은 올 봄에 득남을 했다.

이런 경사들이 모두 내일처럼 기뻐다. 발랄하고 멋쟁이신 박소영 간호사님과 남편 흥도 볼 수 있을 만큼 친숙하다. 각각 개성있는 간호사님과 세상사 이야기도 나누다보면 한가족 같은 느낌이다. 항상, 우리 할머니 같은 심정으로 정성껏 돌봐주시고 애쓰시는 세 분 간호사님께 어머니의 고마움을 더해서 보호자인 딸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순미 님 / 수원시 영통동 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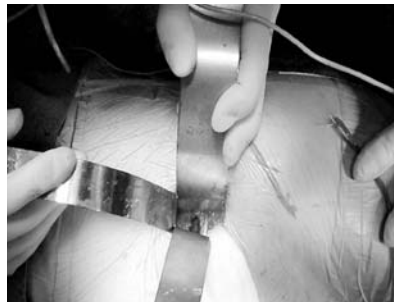


# 요추척추질환, 척추 전방 최소 침습수술



**척추**질환 중 요추부 척추질환을 수술할 때 기존에 수술부위를 30~40cm 절개하는 수술과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 보다 척추전방 최소 침습수술 즉, 옆구리 쪽 후복부를 4~5cm만 절개하는 새로운 수술방법이 매우 유용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아주대병원 정형외과 전창훈 교수에 따르면, 94년 이후 9년간 약 500례의 척추전방 최소 침습수술을 시행한 결과, 수술시간이 평균 4~5시간에서 1시간 30분 이하로 단축되었으며, 최소 절개로 출혈과 흉터가 적고, 회복도 빠르며, 수혈로 인한 부작용 등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 현저히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특히, 이번 새로운 수술방법은 추간판 내장증, 척추 전방전위증, 척추 골수염, 요통이 심한 추간판 탈출증, 척추 불안정성, 척추골절 등 척추암을 제외한 대부분의 요추부 척추질환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전창훈 교수는 말했다.

척추수술에서 최소 침습수술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내시경수술을 생각할 수 있으나 내시경수술은 1cm 구멍 3~4개를 뚫어 수술흉터가 여러개 남고, 수술시간이 3~4시간으로 척추전방 최소 침습수술 보다 길며, 의사의 내시경수술기법 습득기간이 길고, 고가의 수술용 기구를 이용하는 단점이 있어 요추부 척추질환의 경우 내시경수술을 하고 있지 않은 추세이다.

전창훈 교수는 「아직 척추전방 최소 침습수술의 수술기법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30~40cm 절개를 통한 수술을 많이 시행되고 있지만, 척추전방 최소 침습수술의 술기와 장점이 알려지면서 점차 시행이 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척추전방 최소 침습수술은 요추부 척추질환의 보편적인 치료방법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창훈 교수는 10월 샌디에고에서 개최되는 「북미척추외과학회」에서 500례의 척추전방 최소 침습수술 결과를 발표했다.

# 亞洲人의 이라크 도전기

4월 중순이지만 아직은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새벽에 일어나 들뜬 마음으로 정신없이 비행기에 올라탔다. 소집되고 3일만에 우연히 선발대로 뽑혀 남들보다 먼저 전진기지인 쿠웨이트를 향해 출발한 것이다. 국민적인 관심과 반전 여론의 덕택으로 많은 기자들과 시위대로 인천공항은 북적였고 부모님에게 변변한 인사도 못 나누고 온 것이 못내 아쉬웠지만 이왕 시작되고 내가 선택한 기회이니 좋은 결실을 이루고 와야겠다고 다짐을 하며 나의 이라크 도전은 그 첫발을 시작했다.



리의 능력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도 많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전쟁의 피해 보다는 세계 석유생산 2위의 국가가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못하게 된 것을 보면 한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느끼게 했다.

7월11일은 대망의 병원 개원식이 있던 날이다. 이라크 나시리아 지역에 있는 유일한 한국병원인 이곳에서 내과과장의 중책을 맡아 환자를 보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부담감으로 다가섰지만 그래도 10여년 넘게 배워

왔던 지식들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진료에 성심을 다했다. 병원 개원 초반에는 나시리아 방송국에서 촬영을 해 방송에 4번이나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많은 환자들이 몰려왔고 기지 앞 안내 데스크까지 수많은 환자가 진을 이루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환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역시 그냥 돌려 보내야 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고 1년여간 남들보다 열심히 공부했던 중앙혈액 환자들도 상당수 찾아 왔지만 여건상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을 때에는 더욱더 괴로웠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모든 파병원들의 하나된 생각이 아닌가 한다.

이제는 2진과의 교대가 10여일 정도 남았다. 그동안 타국땅에서 한가위 명절도 지내보고 말로만 들어오던 양고기도 먹어 봤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6개월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군대의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다. 파병 부대원 한사람 한사람의 정성을 모아 국익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도 자칫하면 이러한 처지에 놓일 수 있음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6개월 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해서 성공적인 파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비록 복귀 후에 부대원 서로의 길길은 다르고 다시 만날 수 없더라도 이곳에서의 인연은 아마도 생을 마감할 그날까지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한국땅을 출발해서 다짐했던 모든 일들이 6개월이 지나면서 많이 퇴색됐지만 그 누구도 도전해 보지 못했던 것을 좋게 끝내고 간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자부심도 느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힘들 때 메일을 통해 항상 응원을 아끼지 않았던 아주대학교병원 중앙혈액내과 식구들과 의료원 식구들이 고마웠고 언제나 아주인임을 잊지 않게 배려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

강석윤 동문 / 아주의대 96년졸, 아주대병원 중앙혈액내과 수료

## 간이식의 절차

**간** 경화가 진단되어 이로 인한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간장의 기능이 20~30% 정도만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장은 일반인도 잘 알다시피 60~70% 정도를 제거하더라도 기능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그만큼 건강한 사람은 간장의 기능적 여분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다. 간경화로 증상이 있는 경우 이미 대부분의 기능은 소실되고 남은 기능 중 5~10%가 호전되면 증상이 소실되고 악화되면 증상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간경화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면 근본적인 치료(간이식)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겠다.

시간이 늦어 영양상태가 악화되고 체력이 소진되며, 신장 등의 타 장기 기능이 저하되면 간이식 수술이 아무리 성공적으로 수행되더라도 회복하지 못하고 수술 후 사망하게 되는 것이다. 즉, 회복될 수 있는 조건에서 간이식을 조기에 현명하게 결정하여야 하며,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간이식에 대한 상담을 위해 아주대학교병원에서는 일차적으로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라는 장



기이식 전문 간호사가 언제든지 연락될 수 있도록 근무하고 있다. 병원 3층 외과 외래에 있는 장기이식 상담실에서 이식 환자의 상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031-219-5547 또는 016-9277-5376로 연락하면 언제든지 면담일정을 의논할 수 있다.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는 이식 전문의의 외래 진료 시간에 환자 가족의 면담을 예약하여 통보하게 되며, 예약된 시간에 이식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할 수 있다.

상담 후에는 환자가 이식을 하는 데에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지 세밀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이식 전에 미리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검사는 약 2~3주 정도 소요되며,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면 시일이 더 소모되기도 한다. 검사상 이식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제공자를 찾는 과정이 진행된다. 제공자는 가족 중에 건강하고

자발적인 제공자가 있는 경우와 뇌사자의 장기를 제공받기 위한 등록절차를 하여 기회를 얻는 경우가 있다. 가족 중에 간의 일부를 제공할 자발적인 사람이 있는 경우 제공자의 신체적인 조건에 대한 진료와 검사를 하게 되며, 검사는 마찬가지로 약 2~3주 정도 소요된다. 검사상 조건이 간 기증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간 이식 및 제공 수술일정에 대하여 이식 전문의와 논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뇌사자의 간장 기증을 위하여 등록절차가 필요한 환자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필요한 절차를 도와주고 등록된 사항을 환자와 가족에게 확인시켜 주게 된다. 일단 등록이 되면 우리 나라 전국에 발생하는 뇌사자가 있을 때, 정해진 순서에 따라 등록된 이식 대기자에게 뇌사자의 장기가 선정되며, 이식 대기자가 선정되면 아주대학교병원 장기이식 코디네이터가 환자와 가족들에게 즉시 연락하여 이식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을 시작한다. 아주대학교 병원 이식팀은 뇌사자가 있는 전국 어디든지 이동하여 장기를 적출 및 이송하며, 아주대병원에서 선정된 이식 대기자의 이식수술을 진행한다.

간경화로 인한 증상이 있는 환자는 시간이 지나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근본적인 치료에 대한 상담이라도 해야 한다. 간혹 상태가 악화된 환자와 가족들이 미리 근본적인 치료(간이식)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후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늦기 전에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치료에 대하여 장기이식 코디네이터에게 전화하여 상담을 요청하여 보자.

오 창 권 교수 / 외과학교실

제 몸을 나누어 또 다른 생명을 만드는 장기기증은 세상의 가장 값진 사랑입니다. 가슴시리도록 고귀한 이 사랑을 베푸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장기이식 TFT ·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문의전화 031-219-5547 | 016-9277-5376

## 의료원 ▶▶▶

###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 신설

— 2004학년도 1학기 신입생 30명 모집 —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이 2004학년도 1학기부터 신설 운영될 예정이다. 보건대학원 신입생은 오는 11월 아주대학교 대학원 모집전형에 포함하여 보건의정과 관리, 역학과 건강증진, 환경·산업보건 등의 석사학위과정 30명을 모집한다. 원서 교부 및 접수는 11월17일부터 11월28일까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송재관 1층 보건대학원 사무실(112호)에서 실시하며, 방문 및 우편(FAX 포함)으로 접수 받는다. 전형방법은 서류 심사와 면접으로 진행되며, 면접시험은 2003년 12월5일 의과대학 송재관 보건대학원 사무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응시자는 소정양식의 입학원서, 출신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전학년 성적 증명서(학부), A4 1매 분량의 자기소개서 1부씩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의료원은 보건대학원 신설 준비위원회를 지난 10월1일 발족하고 위원장에 외과 김명욱 교수를 임명했다. 위원에는 소의영 기획조정실장, 박명철 제2 진료부원장, 문창현 교수, 전기홍 교수, 조남한 교수, 이경중 교수, 김영배 QI팀장을 임명하여 학생선발과 행정절차 정비 등의 업무를 진행 중이다.

### 美 국방부 의무 차관 일행 방문



Dr. William Winkenwerder 미 국방부 의무 차관을 비롯한 미 121 병원 일행이 10월21일 화요일 아주대의료원을 방문했다. 방문단 일행은 의과대학 2층 회의실에서 김효철 의무부총장, 홍창호 병원장과 접견하고 응급의료센터, 진단방사선과, 외래 등 병원 곳곳을 견학했다. 아주대의료원은 지난 7월 미육군 의무사령부와 진료협약을 체결하고 미국 국방성 현역군인과 퇴역군인 및 그 가족, 국방성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인력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는 한편 주한 미군 부대나 요원들에게 발생하는 테러나 대량사고시 응급진료와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개원 1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의료원은 개원 10주년을 맞아 의료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기념사업을 추진할 조직을 구성했다.

조직은 의료원 개원 1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산하 비전위원회와 기념사업 실무위원회를 두고, 비전위원회 산하에 교육 소위원회, 연구 소위원회, 진료 소위원회, 행정 소위원회 등 4개의 소위원회를 두며, 기념사업 실무위원회 산하에는 기념행사 소위원회, 학술행사 소위원회, 사료편찬 소위원회 등 3개의 소위원회를 두게 된다.

의료원은 개원 1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와 비전위원회, 기념사업 실무위원회는 보직자와 비보직 교원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각 소위원회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적극적인 활동 의욕이 있는 희망 교직원들을 공모하여 구성할 예정이다.

### 수해의연금 2,154만원 모금

의료원은 태풍 수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고자 수해의연금 모금 운동을 실시, 10월6일 모금 결과 2,154만원으로 집계됐다.

의료원은 동아일보에 기탁한 2천만원을 초과하여 모금된 금액 중 1백만원은 병원협회 수재의연금으로, 나머지 금액은 아주사회사업기금으로 출연했다.

### 교직원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의료원은 지난 9월25일, 10월1일 2일 3일간 병원 지하 1층 수석홀에서 교직원 2,467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접종을 실시했다.

또한 아주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2,666명에 대해서도 10월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 의과대학 ▶▶▶



### 의과대학, Richard G, Tiberius 교수 초청 의학교육 특강실시

의과대학은 10월30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병원 지하 1층 아주홀에서 의학 교육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Richard G, Tiberius 교수를 초청하여 의학교육 특강을 실시했다.

「Strategies for Small and Large Group Teaching」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특강에서 PBL과 같은 소그룹 학습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는 실제적 방법뿐 아니라 강의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유용한 전략들이 소개됐다.

연자인 Richard G, Tiberius 교수는 토론토대학에서 Applied psychology로 Ph.D를 취득, 현재 University of Miami School of Medicine의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에 재직중이며 부전공은 교수-학생 관계이다.



### 간호발전을 위한 학교-임상 Co-Work 모색을 위한 특강 개최

간호학부는 간호발전을 위한 학교-임상 Co-Work 모색을 위한 특강을 10월18일 오전 9시부터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간호발전을 위한 학교-임상 Co-Work 모색을 위한 연구팀」 구성에 맞춰 연구 진행과정에 대해 임상 간호사와 간호학부 교원들 모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임상 간호사가 학교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세대의료원 김현욱 간호부원장의 강의에 이어 「학교 교육자가 간호 현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세대 간호대학 유일영 교수의 강의가 있었다. 특강에 이어 1시간 동안 각 분야별로 열린 토의가 이어졌다.

이날 김영수 의과대학장은 「이번 연구회가 환자 간호와 간호학의 학문적 연구에 서로 효율적으로 작용하여 우리 나라에서 앞서가는 모델이 되었으면 한다」고 축사를 대신했다.



### 간호학부 1회 졸업생, 졸업기념 주목 식수

간호학부 제1회 졸업생이 졸업 기념으로 35년 수령의 주목을 기증, 지난 10월7일 화요일 병원 후문 앞에 식수했다.

이날 식수는 아주대학교 오명 총장과 김효철 의무부총장을 비롯하여 김영수 의과대학장, 홍창호 병원장, 김용순 간호학부장, 최영 행정부원장과 간호학부 1회 졸업생 및 간호학부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치과학교실 주임교수 겸 임상과장 직대 — 이정근 교수



의료원은 치과학교실 이정근 교수를 치과학교실 주임교수 직 무대리 및 임상과장 직무대리로 10월1일 임명했다.

이정근 교수는 구강악안면외상 및 기형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다.

### 이명신 연구강사, 기초의학진흥기금 보조금 수

미생물학교실 이명신 연구강사가 2003년 기초의학진흥기금 보조금 수혜자로 선정됐다.

기초의학진흥기금 보조금은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초의학 육성 및 발전을 위해 93년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이명신 연구강사는 「Ribosome display 방법 확립과 이를 이용한 b형 간염 바이러스 terminal protein에 대한 특이 scFv 항체 선별」이라는 연구로 이번 보조금을 받게 됐다.

### <수원시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주소 변경 안내>

아주대학교의료원은 수원시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2003년 12월1일부로 팔달구에서 영통구로 주소가 변경됩니다.

<도서기증> 시설관리팀 최성태 직원이 환자들을 위한 도서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무협소설 등 총 200여권의 도서를 기증했다.

병원 ▶▶▶



**<방문>  
도쿄대 Yoshio Namba 교수 및 연세의대 48회 동기생 내원**

일본 도쿄대학의 Yoshio Namba 교수가 지난 10월1일 뇌질환연구센터 김승업 교수의 안내로, 우리 병원의 OCS를 비롯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시찰하기 위해 내원했다.  
또한, 이삼열, 민창동, 노용희 선생을 비롯한 연세대 의과대학 48회 동기생이 지난 10월16일 내원, 김효철 의무부총장, 김영수 의과대학장, 홍창호 병원장, 소의영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뇌질환연구센터 및 병원 시설을 견학했다.



**진혜영 간호사, 경기도로부터 표창장 받아**

감염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Q팁 진혜영 간호사가 지난 10월10일 경기도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이번 표창장은 평소 전염병 예방관리에 남다른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적극 참여해 왔으며, 특히 사스(SARS) 발생 예방과 환자 관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수상하게 된 것이다.

**간질환 및 유방암 공개강좌 개최**

병원은 간의 날을 기념하여 성빈센트병원과 공동으로 지난 10월17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성빈센트병원 2층 회의실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간질환 공개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공개강좌는 소화기내과 조성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소화기내과 정재연 교수가 간암의 조기진단 및 관리에 대해 강의했다.  
한편, 병원은 지난 10월28일 화요일 오후 2시 병원 지하 1층 아주홀에서 한국유방암학회에서 주최하는 핑크리본 대국민 공개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공개강좌에서 외과 박희봉 교수가 유방암의 조기진단과 치료에 대해 강의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함께가는 우리' 체육대회 개최**



척추장애우 모임 「함께가는 우리」는 지난 10월3일 김용서 수원시장과 재활의학과 이일영 교수 등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재한마당 체육대회」를 가졌다.

이날 「함께가는 우리」 회원들은 윗놀이와 간이 볼링게임, 휠체어 농구 및 릴레이 경주 등 행사에 참가,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인라인동호회 AMIC, 경품 TV 양로원 기증**

의료원 인라인 동호회 아미(AMIC)회원들이 지난 10월26일 일요일에 개최된 제1회 중부일보사장배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에서 경품으로 받은 29인치 텔레비전을 양로원에 기증해 화제를 모았다.

박승현 회장은 「결성된지 불과 1개월 밖에 안되는 초보 동호회 인데도 첫 참가대회에서 전원이 완주한 의미로 양로원에 기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신문. 방송에 보도된 아주대의료진**

**신문(Newspaper)**

일시	매체	보도대상자	보도내용
9.29	동아일보	호흡기내과 최영화 교수	신베스트닥터의 건강학 - 감염내과
9.29	한국일보	내분비내과 김대중교수	과일과 비만 치료
9.30	수원일보	이비인후과 문성균 교수	선천성 청각장애아 인공와우 지원 폭 확대돼야
9.30	중앙일보	소화기내과 함기백 교수	간질환자 생약 잘못 먹으면 毒
10.2	국민일보	유전학클리닉 김현주 교수	희귀병 눈물겨운 시투 - 모성중후군
10.6	동아일보	외과 박희봉 교수	신베스트닥터의 건강학 - 유방질환
10.6	한국일보	피부과 이상낙 석좌교수	액취증 환자용 치료제 개발
10.8	중부일보	유전학클리닉 김현주 교수	사랑의 릴레이 음악회 개최
10.10	중앙일보	피부과 강희영 교수	박피
10.10	경인일보	유전학클리닉 김현주 교수	사랑의 릴레이 음악회 개최
10.13	동아일보	산부인과 김형수 교수	신베스트닥터의 건강학 - 고위험 임신
10.13	인천일보	정형외과 전창훈 교수	합병증 감소 「새 척추수술법」
10.15	한겨레	가정의학과 김광민 교수	수험생 건강관리
10.15	경인일보	중앙혈액내과 김효철 교수	약상혈액질환 정복을 향해
10.16	중부일보	중앙혈액내과 김효철 교수	조혈모세포이식센터 300례 돌파
10.16	경기일보	중앙혈액내과 김효철 교수	조혈모세포이식술 국내 최고
10.16	경기일보	피부과 윤경환 교수	탈모
10.20	동아일보	산부인과 황경주 교수	신베스트닥터의 건강학 - 불임치료
10.21	수원신문	정형외과 전창훈 교수	요추부 척추질환 신수술법 개발
10.22	한겨레	진단방사선과 조재현 교수	영상으로 잡은 건강이야기 - 유방암 검진
10.22	경인일보	정형외과 전창훈 교수	수술후터 기준의 10%
10.27	동아일보	알레르기 류마티스내과 박해심 교수	신베스트닥터의 건강학 - 알레르기 · 천식
10.20	주간조선	내분비내과 김대중 교수	저인슐린 다이어트 효과있다

**방송(Broadcasting)**

일시	매체	보도대상자	보도내용
9.27	SBS 세상에서 가장-생로병사의비밀	재활의학과 나은우 교수 신경과 방오영 교수	18살 미경이의 다시 처음...
9.30	KBS 생로병사의비밀	순환기내과 최병일 교수	돌연사는 없다
9.29-30	Health Sky TV 베스트클리닉	산부인과 황경주 교수	불임클리닉
10.1	KBS TV클리닉 단신의건강은	순환기내과 최병일 교수	황금의 10분-심장마비를 막아라
10.5	KBS 취재파일 4321	신경통증클리닉 김찬 교수	통증 환자의 또 다른 이름
9.6-7	Health Sky TV 베스트클리닉	소아과 황진순 교수	성장장애클리닉
10.7	KBS 생로병사의비밀	호흡기내과 황성철 교수 중앙혈액내과 최진혁 교수	장이 편해야 오래 산다 '폐'
10.13-14	Health Sky TV 베스트클리닉	외과 소의영 교수	갑상선클리닉
10.15	MBC 뉴스데스크	소아과 배기수 교수	엄마가 무서워요
10.19	KBS 생방송 KBS 자널	유전학클리닉 김현주 교수	의료의 시각지대, 희귀질환
10.19-20	Health Sky TV 베스트클리닉	외과 박희봉 교수	유방클리닉
10.25	SBS 세상에서 가장-	유전학클리닉 김현주 교수	13살 헤란이의 행복 미소
10.26	SBS 세븐데이즈	유전학클리닉 김현주 교수	아버지의 선택 - 희귀난치병질환자들의 끝나지 않은 고통

**아주사회사업기금**

**후원구좌 가입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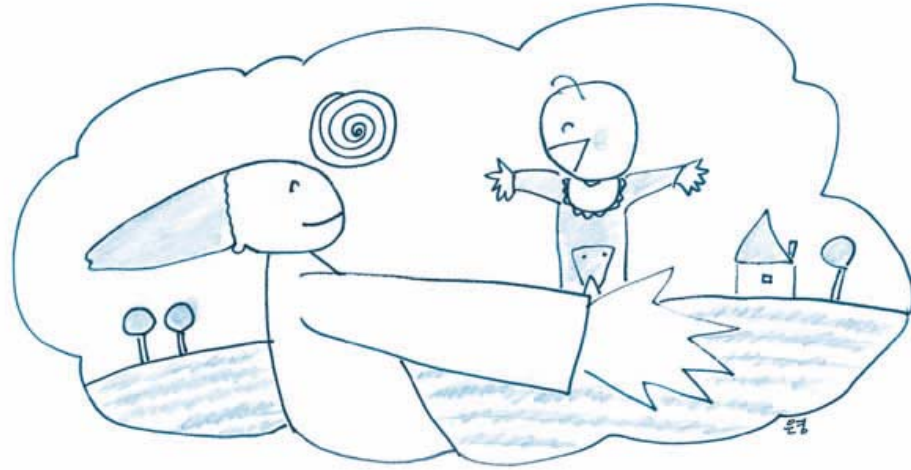
아주대병원 사회사업팀에서는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비 및 재활용품 지원, 지역사회내의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아주사회사업기금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 지로계좌번호 7657236
- ▶ 은행무통장 입금  
제일은행 692-20-116147
- ▶ 예금주 아주대학교의료원



##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환자의 방사선 방출이 유아에게 영향이 미치는지요?



**Q** 어머님께서 갑상선 수술 후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받으실 예정입니다. 그런데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시 받는 방사선이 유아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만 7개월, 30개월, 48개월 아이들이 할머니 댁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떨어져 지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받는 환자의 몸에서는 처음 수일 간 다량의 방사선이 체외로 방출되므로 입원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원은 일반적으로 2박 3일~3박 4일 정도로 하고 있으며, 환자의 몸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이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미미할 때 퇴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원 기준에 따라 귀가하셨을 경우에는 성인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안전하여, 알려진 방사능 피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체에 해를 끼칠만한 위험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방사능 피폭은 최소한으로 한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성장기인 아이들에게는 좀 더 주의를 하시도록 퇴원시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퇴원 후 아이들과 1주일 정도 1m 이상 떨어져서 지내시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핵의학과 윤준기 교수〉

핵의학과 외래 031-219-5939



## 테니스 엘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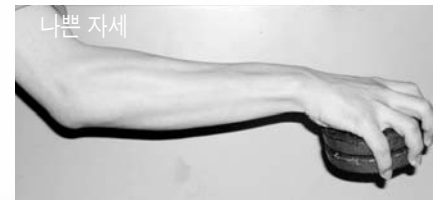


### 「테니스 엘보(tennis elbow)」란?

팔꿈치관절 바깥쪽 뼈가 조그맣게 움기된 부분(외측상과)에 통증이 있는 병을 말하며 의학용어로는 「외측상과염」이라고 한다. 테니스를 즐겨하는 사람들에게 잘 생겨서 「테니스 엘보」라는 이름이 붙었다.

### 「테니스 엘보」의 치료

치료법으로 첫번째 단계는 ① 팔의 휴식과 동작 교정(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여 물건을 집거나 들어올린다) ② 증세 초기 2~3일 동안은 얼음찜질을 하고 그 후엔 온찜질로 바꾼다. ③ 스트레칭 운동 ④ 소염



▲ 테니스 엘보의 치료 중 스트레칭 운동

### 「테니스 엘보」는 왜 생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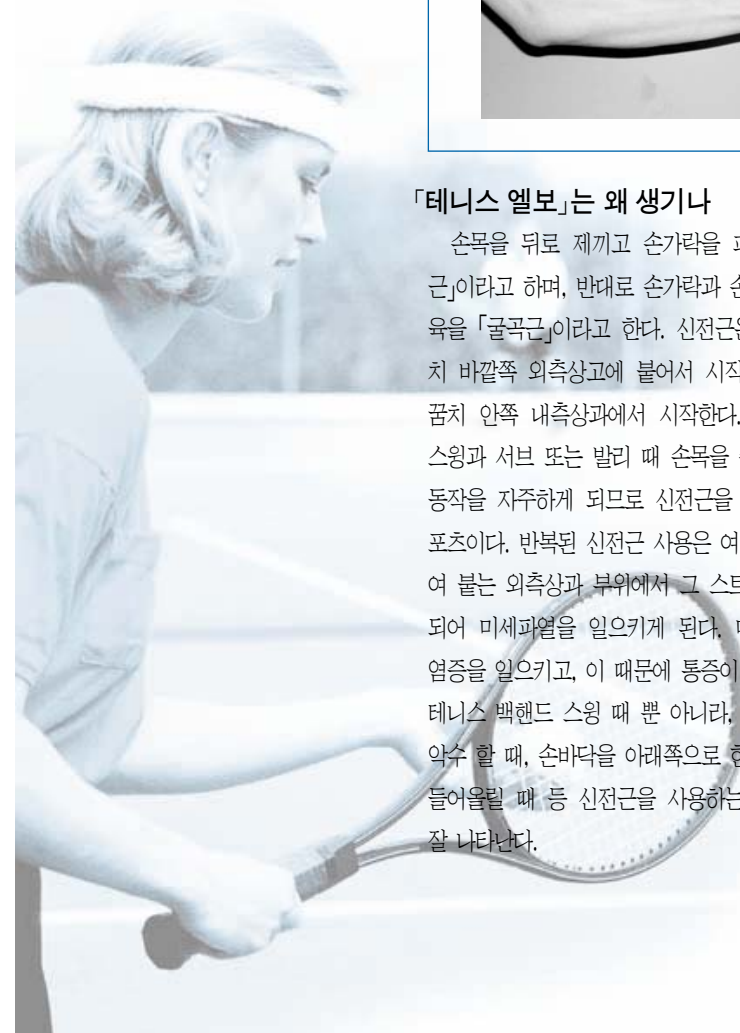
손목을 뒤로 제끼고 손가락을 펴는 근육을 「신전근」이라고 하며, 반대로 손가락과 손목을 구부리는 근육을 「굴곡근」이라고 한다. 신전근은 함께 모여 팔꿈치 바깥쪽 외측상과에 붙어서 시작하며 굴곡근은 팔꿈치 안쪽 내측상과에서 시작한다. 테니스는 백핸드 스윙과 서브 또는 발리 때 손목을 손등쪽으로 제끼는 동작을 자주하게 되므로 신전근을 많이 사용하는 스포츠이다. 반복된 신전근 사용은 여러 근육이 함께 모여 붙는 외측상과 부위에서 그 스트레스가 가장 집중되어 미세파열을 일으키게 된다. 미세파열은 주위에 염증을 일으키고, 이 때문에 통증이 발생한다. 따라서, 테니스 백핸드 스윙 때 뿐 아니라, 문고리를 돌릴 때, 악수 할 때, 손바닥을 아래쪽으로 한 자세에서 물건을 들어올릴 때 등 신전근을 사용하는 동작에서 통증이 잘 나타난다.

제 복용 등이다. 1단계 치료로 증세가 호전되지 않으면 2단계인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받아야 하며, 정도가 심할 경우엔 수술을 받아야 한다.

### 「테니스 엘보」를 예방하는 요령

- ① 운동 시작 전 준비운동을 하여 몸을 미리 덥히면 각 부위의 혈액순환이 증가되어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
- ② 그립사이즈, 라켓의 장력 등이 잘 맞지 않으면 팔로 가는 스트레스가 증가되므로 적합한 테니스 라켓을 사용한다.
- ③ 테니스 초보자는 공이 라켓의 중심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더 큰 스트레스가 팔로 전달되어 테니스 엘보가 잘 생긴다. 그러므로 충분한 기본 자세 연습이 필요하다.

김현정 교수 / 정형외과학교실





## 구강건강에 대한 상식

### 스케일링을 하면 이가 꺾여나가서 시리므로 안하는 것이 좋다?

치석은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결합하여 생성되는 것으로, 치아와 잇몸에 자극을 주는 해로운 물질입니다. 특히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며 계속 치아 뿌리 방향으로 파고 들면서 치아가 흔들려 빠지게 되는 치주병(풍치)의 원인이 됩니다. 스케일링은 치아에 붙어 있는 치태 및 치석을 제거하는 치료로 치아에는 전혀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스케일링 후에 이가 시린 것은 치석제거로 잇몸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부어 있던 잇몸이 수축되어 치아뿌리가 노출되기 때문으로 시간이 지나면 회복됩니다.

<정답 : x>

### 잇몸병(풍치)은 잇몸약으로 고칠 수 있다?

잇몸질환의 원인은 치태나 치석에 의한 잇몸 자극으로,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 치료되지 않습니다. 발바닥에 가시가 박혀 염증이 생겼을 때, 가시를 제거하지 않고 소염제만으로는 염증이 가라앉지 않는 이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잇몸병은 내과의 질병같이 약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외과 치료에 의한 원인 제거가 필요합니다.

<정답 :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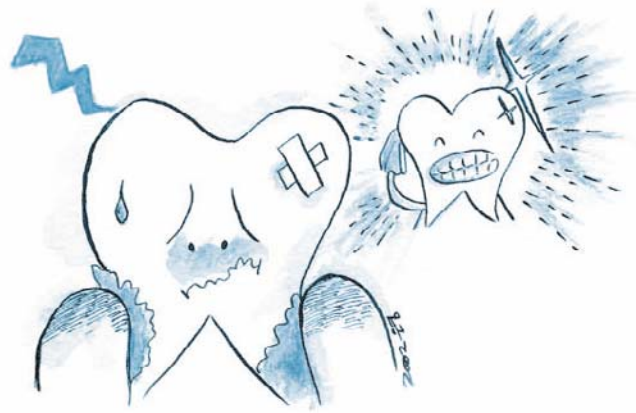
### 임신 중에는 치과치료를 받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치과 치료시 행해지는 마취나 발치, 잇몸 치료 등 외과적 처치가 임신부의 전신건강에 영향을 주거나 혹시 유산 또는 조산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투약시 태아에 영향이 적은 약물의 선택, X-선 촬영시의 주의, 고혈압 처치 등 세심한 배려만 전제된다면 치료실에 걸터 들어올 수 있는 정상적인 성인 여자와 다름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에 의한 위험성보다는 임신시의 각종 구강병으로 인한 통증이나 염증에 의한 생리적, 정서적 고통이 임신부나 태아의 건강에 더욱 해로운 것입니다.

<정답 : x>

### 아이들의 유치는 어차피 교환할 치아이니 치료할 필요 없다?

유치는 영구치가 올라오는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즉 유치를 일찍 잃게 되면 영구치가 방향감을 상실하여, 덧니의 원



인이 됩니다. 또한 인접치아가 쓰러져 영구치가 나올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예방과 조기치료로 정상적인 시기까지 유치를 보존하도록 하고, 유치가 조기에 상실된 경우에는 공간이 좁아지지 않도록 영구치가 올라오기 전까지 간격유지장치를 끼야 합니다.

<정답 :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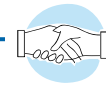
### 나이가 들어서도 치아는 자란다?

치아는 잇몸뼈 속에서 다 만들어진 후 뿌리가 만들어지면서 잇몸 바깥으로 올라오는데, 치아의 두께나 넓이는 우리 몸이 커진다고 해서 더 커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고 잇몸 질환으로 잇몸선이 아래로 내려가면 서 치아 뿌리가 노출되면 치아가 길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정답 : x>

고 석 민 교수 / 치과학교실



## 평택중앙병원



### 참사랑의 실천, 평택중앙병원

경기남부의 최대 재래시장인 통복시장과 금육타운이 들어서 있는 평택의 중심지 통복동에 위치한 평택중앙병원은 2001년 7월에 개원한 이제 2년 남짓의 역사를 가진 병원이다. 질병으로부터 고통 받는 환자의 육체적, 정신적인 아픔을 최대한 덜어주며 가족과 같은 친절과 봉사정신으로 참사랑을 실천하겠다는 정서진 병원장의 개원 이념 아래 2001년 4월 준비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처음에는 쓰러져 가는 병원을 인수하였으나 3개월간의 탄탄한 준비과정을 거쳐 현대식 인테리어와 환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현대식 시설 및 최신 의료장비를 갖추고 환자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정신으로 한데 뭉친 의료진과 직원들로 병원을 구성한 끝에 개원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 소외된 사람의 안식처로서

평택중앙병원은 개원 2년여 만에 현재 지하1층과 지상 5층 규모의 130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진단방사선과, 피부과, 비뇨기과, 신경외과 등의 진료과목을 개설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준 종합병원으로 발돋움하였다. 완벽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족한 부분은 경기남부의 유일한 3차 진료기관인 아주대학교병원과의 협력체결을 통하여 보완하면서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노령화되어 가는 사회 속에서 전문요양병원의 필

요성을 절감한 평택중앙병원은 당시 전문요양병원이 없던 평택에 전문요양병동을 개설하여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병원장의 신념 하에 전문요양병동 개설을 추진한 결과, 2002년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식 지정을 받아 현재 3병동을 전문요양병동으로 운영중이다.

또한 평택중앙병원은 개원 이래로 성육보육원, 인수원, 열린재활원 등 자칫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곳을 찾아다니며 참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질병을 치료하기 보다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 사전에 예방한다는 정신으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검진버스를 이용하여 무의촌 의료봉사 및 사회에서 소외된 곳을 찾아 다니며 참사랑을 실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모든 행보가 가족과 같은 친절과 봉사정신으로 참사랑을 실천하겠다는 개원이념의 현실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부담없이 찾을 수 있는 친근한 병원

평택중앙병원은 항상 평택시민과 함께 공존하는 병원을 구상하고 있다. 최신 의료기술의 습득 및 최신 의료장비의 구입, 그리고 직원들의 인성교육 등에 있어서도 과연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항상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삭막하고 인정이 메마른 현대사회에서도 따뜻하고 끈끈한 인간미가 묻어나오는 재래시장과 같은 병원 분위기와 의료환경을 꿈꾸고 있다. 부담 없이 시장을 찾았다가 한 번 들러서 아픈 곳을 털어 놓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이 평택중앙병원의 현재의 모습이고 미래에도 변함없이 지속될 모습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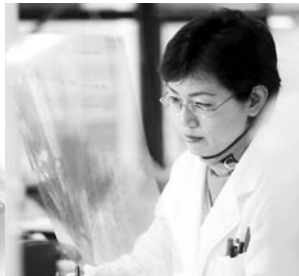
김 영 배 팀장 / Q팀

최고의 의학명문 아주대학교의료원을 여러분이 키웁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발전을 위한 자리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 아주대학교의료원 교육·연구동 건축기금 조성

저희를 믿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의력이 있는 의과대학, 질병 연구와 치료의 흐름을 선도하고자 하는 저희 아주대학교의료원의 의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신설되는 교육·연구동에는 첨단 연구시설과 인력이 집중되면서 정보 교류와 협력, 시설의 공유를 통해 역량을 극대화하여 아주대학교의료원 연구의 중심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발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아주대학교의료원 교육·연구동 건축기금 모금 현황

▶▶총계

구분	회원수	약정액	기부총액
월간	5명	5,020,000원	22,692,000원
누계	324명	1,062,500,531원	982,731,331원

성명	약정액	의료원과 관계
김연정	200,000	원무팀
아라코	2,100,000	장례식장 식당(2차분)
유인숙	200,000	원무팀
전진욱	20,000	교외 후원자
채옥미	500,000	구매관리팀
	2,000,000	아주의대 제10회 졸업생 일동
교직원 분납분	18,572,000	(교직원 급여 공제)

#### ■ 우리 모두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의학발전과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희를 믿고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다양한 형태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현금, 주식, 기타 자산이나 의료기기, 부동산, 귀중품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도 좋은 후원입니다.

####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와주십시오.

- 지로납입    전화신청    031-219-4000
- 자동이체    거래은행    신청 후 후원회에 전화통보
- 무통장 입금    거래은행    예금주 : 아주대학교의료원
- 제일은행    692-20-166907
- 한미은행    542-00896-248
- 농협        116-01-060243
- 국민은행    593501-01-082841
- 우리은행    177-089499-13-102

(가나다순)  
2003.9.29~2003.10.22



사랑의 릴레이 음악회 개최



한국희귀질환연맹(대표 유전학클리닉 김현주 교수)은 작년에 이어 지난 10월11일 토요일 오후 2시 경기문화재단 다산홀 3층에서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사랑의 릴레이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는 황현정(전 KBS 열린 음악회 MC이며 현재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진행자)씨 사회로, 경기도립 팝스오케스트라 브라스앙상블의 클래식 연주, 가수 박유하의 노래, 한찬수 RP협회 부회장의 클래식 기타 연주, 포크 가수 방대식·정미영의 노래, 한상일 군의 트럼펫 연주 등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과 노래로 진행됐다.

특히, 가수 박유하, 한상일 군, 나용희 님은 본인이 유전질환 환자이면서 뛰어난 연주와 음악을 선사해 관객들로부터 갈채를 받았다.

이번 음악회에는 김효철 의무부총장, 왕희정 의학부장, 김승현 간디학교 이사장, 최향순 경기도청 질병관리과장, 유전질환 환자 및 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희귀질환연맹은 매년 사랑의 릴레이 음악회 외에도 「희귀유전질환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심포지움, 야유회, 환자 모임 등 의미있는 다양한 행사를 갖고 있다.

전문클리닉 진료시간표

진료과	의사명	진료시간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4310	강신영	5818		월	수부 및 상지과	
	박해심	5902	수		류마티스 관절염, 무부스	
	남동환	5902		화	류마티스 관절염, 무부스	
	서창희	5818	월, 화	화, 수, 금	류마티스 관절염, 무부스, 강직성 척추염, 만성염 관절염, 스킨 중추근, 혈관염 및 자가면역질환에 동반된 관절염	
	민병현	5543		수	슬관절 및 견관절의과	
	전장환	5542	화		척추외과	
	원예연	5542	월		인공관절의과	
	한경진	5543	목		수부 및 상지과	
	김현정	5543	수		발목 및 발의 질환	

진료과	의사명	진료시간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유전학클리닉	김현주	5903	화, 목	수	각종 유전질환, 유전성 암질환	
	김현주	5903	화, 목	수	유전상담	
통증클리닉	김찬	4331	월, 수, 금		삼차신경통, 다반통, 수족냉증, 대상포진후 신경통	
	한경림	4331	화, 목, 토	수	경부·요부 디스크, 오십견, 두통, 교감신경허약증	
유방클리닉	김민진	4332	월, 화, 목, 금		경부·요부 디스크, 오십견 등 암상징 등 기타	
	박희봉	4743	월, 목*	월, 목	유방질환	
학술 및 발달클리닉	정종식	4743	화*, 수, 금		유방질환 및 갑상선 질환	
	정종식	4743	화*, 수, 금		*은 밤모름 시술만 시행	
학술 및 발달클리닉	신운미	5814		화	소아·청소년 정신과, 발달장애	★
	조선미	5814	금, 토	수, 금	심리검사 프로그램	

전문클리닉명	의사명	진료시간	오전	오후	비고
소화기내과	간암클리닉	조성원	월, 화, 목		
	5976	이기명	수, 토	월	
순환기내과	심부전클리닉	최병일	월		
	5717	장혁재	목		
호흡기내과	여행자 예방접종클리닉	최영화	4730	목	월, 수
	4730				
알레르기내과	벌독(곤충독) 알레르기클리닉	박해심	5905	월, 금	
	5902	남동환	5905	화, 토	목
정신과	공황장애 인지행동 치료클리닉	임기영	5810	화	목(19:00~21:00)
피부과	안면색소클리닉	강희영	5914	월, 수, 목	목(레이저치료)
	5917				
흉부외과	모발클리닉	윤경한	5914	화, 금	화, 금(레이저치료)
	5917				
성형외과	하지정맥류클리닉	최호	5752	화, 목	화
	5752				
신경외과	뇌출중 혈관내 수술클리닉	신용삼	5664	수	
	5664	김선웅	5858		
성형외과	구순구개열클리닉	박명철	5611	수	
	5614				
안과	안면윤곽 미용클리닉	정재호	5612	화, 목	금
	5614				
산부인과	불임클리닉	황경주	5643	월, 수, 금	월, 금
	5597	김미란	5643	화, 목, 토	화, 목
안과	콘택트렌즈클리닉	문상호	5671		금(1주, 3주)
	5673				
안과	움직이는 의안클리닉	문상호	5671		금(2주, 4주)
	5673				
비뇨기과	요실금클리닉	최종보	5587	화, 금	수
	5585				
가정의학과	야뇨증클리닉	김영수	5586	수	금
	5585				
치과	비만클리닉	김병택	5957	월, 수, 목	월, 금
	5959	신상호	5957	목	
치과	인공치아 이식클리닉	황병남	5869	화	화, 목
	5869	고석민	5869	화	수
치과	턱관절장애클리닉	황병남	5957	금	월
	5869				

셔틀버스 운행 노선 (운행간격 : 20분)

병원 → 아주대 입구 (우리은행) → 미소지움아파트 → 동수원사거리 삼성생원 → 동수원사거리 조흥은행 → 호텔캐슬 건너편 이화약국 → 아주대 삼거리 → 국립지리원(팔각정 갈바 옆) → 병원

클릭! 아주대학교병원 홈페이지



또 다른 즐거움이 있는 곳

www.ajoumc.or.kr

아주대학교병원 외래진료 시간표

(2003년 11월1일 현재)

외래진료 접수시간

\* 평 일 오전 8:00~오후 4:00  
\* 토요일 오전 8:00~오전 11:30

진료과	의사명	진료시간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소화기내과	조성원	5969	월, 화, 목		간질환		
	김진홍	5962	화, 금	수	위장관치료내시경, 웨·담도질환		
	황기백	5963	월, 목	화	위장질환	★	
	이광재	5963	수, 금	월	위장질환, 위장관 기능장애		
	유병무	5962	월, 수	금	웨·담도질환, 치료내시경		
	이기명	5963	수, 토	월	위장관질환		
	정재연	5962	금	화, 수, 목	간질환		
	김도현			목	소화기질환		
	송현주			수	소화기질환	★	
	이은희			금	소화기질환		
순환기내과	최병일	5974	월, 화, 수		심장혈관질환		
	탁승재	5973	화, 수	수	관상동맥질환협상증, 심근경색증, 심장혈관중재시술		
	신준환	5975	월, 목	화	심부전, 심장질환, 고혈압	★	
	황고승	5975	목	월, 목	부경맥, 관기형성술, 전극도자갈색술, 인공심박동기	★	
	윤영호	5975		화, 목, 금	관상동맥질환협상증, 심근경색증, 심장혈관중재시술		
	최소연	5975	금	수, 금	관상동맥질환협상증, 심근경색증, 심장혈관중재시술		
	장혁재	5975	금	월, 목	심장질환, 고혈압, 심부전		
	최태영	5975	화		고혈압, 심장질환	★	
	최병주	5973	토		고혈압, 심장질환		
	일반진료						
호흡기내과	황성철	5967	월, 화, 수(외국인진료), 금	목	폐결핵, 감염성폐질환, 폐암		
	박광주	5967	해외연수중		만성폐질환, 폐암, 폐결핵, 중환자치료학		
	최영화	4731	목	월, 수	폐스, 환기모노일 합리화, 크지부시 분할 개흉경원		
	오윤정	5968			만성폐질환, 폐암, 폐결핵		
	신승수	5968	수, 토	월, 화	만성폐질환, 폐암, 폐결핵		
	일반진료	5968	목	금	호흡기질환		
	내분비내과	이관우	5956	월, 수, 금	목	당뇨질환 및 내분비대사질환	
		정문식	5961	화, 목	월, 금	골다공증질환 및 내분비대사질환	
	신장내과	김대중	5961	월, 목	화, 수	당뇨병, 비만, 갑상선질환	
		5954	일반진료	5961	토	내분비대사질환	
신장내과	김홍수	4741	월, 수, 목, 수, 금		만성신부전증, 무식치료, 사구체신염		
	신규태	5971	화, 목, 수, 금	월	신장이식, 고혈압, 사구체신염		
종양내과	김명성	5971	토	수	신장질환		
	5971	일반진료	5971	화			
내과	김효철	5992	월, 수, 금		원프중, 골수종, 백혈병, 혈액질환, 조혈모세포이식		
	임호영	5991	월, 화, 목		식도·위장·대장·직장암, 각종 고혈압		
내과	최진희	5991	수, 금	월	두경부·식도·폐암, 유방암, 각종 고혈압		
	박준성	5991	화, 목	화, 수, 목	혈액질환, 종양		
내과	일반진료	5991	토	월-금	각종 암 및 혈액질환		
내과	박해심	5905	수, 목, 수, 금	수	천식, 알레르기질환, 류마티스 무부스		
	남동환	5905	화, 토	화*, 목	천식, 알레르기·류마티스질환, 무부스, 통풍		
내과	서창희	5818	월, 화*	화*, 수, 금*	류마티스 관절염, 무부스, 강직성 척추염, 만성염 관절염, 스킨 중추근, 혈관염 및 자가면역질환에 동반된 관절염		
	최정희	5905	목	월, 화, 금	천식, 알레르기·류마티스질환, 무부스, 통풍	★	
내과일반	5970	월~토	월~금		*는 관절염센터 진료		

진료과	의사명	진료시간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소화기내과	홍창호	5620		수, 금	청소년 의학, 성장과 발달	
	김성환	5616	화, 목, 금	수	신경계질환, 간질환	
	배기수	5623	월, 화, 금	수	신장학	
	이수영	5623	월, 수, 목	수	알레르기, 호흡기학	
	박문성	5617	월	수, 화, 금	미숙아, 신생아학	
	정조원	5621	수	월, 목	심장질환(대, 수, 금)은 심장 초음파 가능	
	황진순	5621	수, 금	수, 목	소아내분비 질환	
	박준은	5621	수, 금	월, 목	소아혈액·종양	
	일반진료			월-토	월-금	
*토요일은 특진1명, 일반 1명의 의사가 주마다 교대로 진료를 합니다.						
신경과	허균	5659	화, 수	월, 목	간질, 치매, 뇌혈관질환	
	주인수	5653	화, 목	월, 금	말초신경질환, 근육질환	
	방오영	5657	월, 금	화, 수	뇌혈관질환, 뇌졸중, 치매	
	이필후	5657	월, 토	수	뇌혈관질환, 뇌졸중, 간질	
	일반진료	5657	수, 목, 금	화, 목, 금		
정신과	정영기	5811	월, 수, 금	화	정신분열증, 사회공포증, 불안장애, 스트레스장애	
	임기영	5810	화	수, 금	공황장애, 강박장애, 불안 및 스트레스장애, 우울증	
	이영문	5810	목, 토	월, 목	정신분열의 재활치료	
	노재성	5811	수, 목	월, 금	우울증 및 신경성 신체장애	
	신운미	5812	월, 금	화, 목, 금	학습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틱장애장애	★
	일반진료	5812	화	화, 목		
피부과	이성낙	5912	(예약)		베체트병, 화학박피술	
	이은소	5913	월, 화, 목	(예약), 수	건선, 여드름, 베체트병(화·레이저치료)	
	강희영	5914	수, 금	월, 목, 수(예약)	백반, 무좀, 접촉피부염 (목:레이저치료)	★
	레이저치료			화, 금	예약에 의함	★
일반진료			월-토	월-금		
외과	김명욱	5761	월, 수	수	난치성 소화기(위, 담도, 췌장)질환	
	조용관	5756	화	화, 수	식도, 위장질환	
	소의영	5756	수, 금		내분비 질환, 두경부 질환	
	홍정	5754	화, 목		소아외과 질환(기형, 종양, 탈장, 배변기능장애)	
	왕희정	5753	금	화, 금	간암, 간내결석, 간이식	
	서광욱	5753	월(재진)	월(초진), 목	대장·직장·항문 질환	
	박희봉		유방클리닉 진료		유방질환	
	오창권	5756	월, 금	월, 금	장기이식, 소화기질환	
	김욱환	5756	화, 목, 토		간·담도·췌장 질환	
	한상욱	5754	수, 금	월	위·십이지장 질환	
이국중	5753	목		외상외과, 소화기외과		
정종식		유방클리닉 진료		유방질환, 갑상선 질환		
김정은	4744	목, 토		담도계질환, 복강경수술		
윤태일			수	내분비 질환		



아주대학교병원  
주요 전화번호 안내

- 대표전화 : (031) 219-5114
- 종합안내센터 : (031) 219-5500~1
- F A X : (031) 216-6656
- 외국인안내 : (031) 219-5546
- 전화예약 : (031) 219-5451
- 응급의료센터 : (031) 219-6000
- 건강증진센터 : (031) 219-5555

진료과명 진료시간표	의사명	진료실 전화번호	오 전	오 후	세부전공	비고
해부 외과	이철주	5749	금	금	성인심장외과	
	소동문	5750	월, 수	월	소아심장외과, 혈관외과	
	최 호	5750	화, 목	화	폐·식도외과, 단환중, 하지정맥류	
	김정태	5750		수, 금	심장외과, 일반흉부질환	
	강준규	5750		화, 목	심장외과, 일반흉부질환	
5717 5752	일반진료	5750	토	심장외과, 일반흉부질환		
정형외 과	강신영	5544		월*, 목	수부 및 상지외상, 기형, 미세수술외과	★
	민병현	5543	월, 금(초진)	수*	슬관절 및 건관절외과	
	전창훈	5542	화*, 목, <span style="background-color: #e0f0ff;">□</span>		척추외과, 측만증, 최소침습수술	
	원예연	5542	월*, 수	목	인공관절외과	
	한경진	5543	목*	월, 화	수부 및 상지외과, 미세수술외과, 사지혈관신경외과	
	김현정	5542	수*	화, 목	발목 및 발의 질환	
	조재호	5542	금	수	소아정형(변형교정, 키늘리는 수술), 외상	
	일반진료	5542	화, 수, 목, 토	금	*는 관절염센터 진료	★
신경외 과	조경기	5661	월, 목	목	뇌종양, 척추질환	
	조기홍	5662	수, 목	월	척추질환, 신경통증치료	
	윤수환	5662	화, 금	화	소아신경외과, 뇌종양	
	안영환	5662	화, 금	금	안면경련증, 삼차신경통, 방사선수술, 뇌종양	
	신용삼	5663	월, 수	수	뇌혈관질환, 뇌졸중, 중재적 치료	
	김세혁	5663	토	수, 금	뇌종양, 외상	
성형외 과	박명철	5611	월, 수, 금		유방성형, 소아기형, 미용성형	
	정재호	5612	화, 목	금	악안면부성형, 미용성형	
	박동하	5612		월, 수, 목	수부성형, 미용성형	
	황인석	5612	토	화	미용성형	
	일반진료	5612	월-토	월-금		
산부인 과	오기석	5595	화, 목, 금		부인과 질환	
	유희석	5594	화, 목	월	부인암	
	김행수	5593	해의연수중		고위험산모, 초음파 (특수진료·예약에 한함)	
	장기홍	5594	월, 수	화, 금	부인암, 복강경수술	
	양정인	5593	<span style="background-color: #e0f0ff;">□</span> , <span style="background-color: #e0f0ff;">□</span>	월, 수, 목, <span style="background-color: #e0f0ff;">□</span>	고위험산모, 초음파 (특수진료·예약에 한함)	
	황경주	5593	월, 수, 금	월, 금	불임 및 복강경	
	이정필	5595	월, 토	수, 목	부인암, 산과, 부인과	
	김미란	5594	화, 목, 토	화, 목	불임, 산과, 부인과	
일반진료	5594	월-토	월, 수, 목, 금			
안과	유호민	5669	월, 수, 금	<span style="background-color: #e0f0ff;">□</span> (예약), <span style="background-color: #e0f0ff;">□</span> (예약)	망막, 초자체, 백내장	
	안재홍	5670	월, 금	화	각막, 녹내장, 백내장, 굴절수술	
	장윤희	5672	토	월, 목	사시, 소아안과	
	문상호	5671	화, 토	금	안성형, 백내장, 렌즈클리닉	
	일반진료	5671	월-토	월-금		
이비인 후과	박기현	5742	월, 금		난청, 어지럼증, 귀종양 및 두개저외과	
	문성균	5742	<span style="background-color: #e0f0ff;">□</span> 비인강클리닉	월, 목	난청, 어지럼증, 귀종양 및 두개저외과	
	정연훈	5742	<span style="background-color: #e0f0ff;">□</span> 비인강클리닉	화, 금	난청, 어지럼증, 귀종양 및 두개저외과	
	김철호	5746	수, 목, <span style="background-color: #e0f0ff;">□</span> 비인강클리닉	월	두경부 종양, 음성장애, 기관·식도 질환	
	김현준	5746	토	화, 수	비염, 부비동염, 후각장애	
	최호석	5746	화, 토		난청, 부비동염	★
일반진료	5746	월-토	월-금			

진료과명 진료시간표	의사명	진료실 전화번호	오 전	오 후	세부전공	비고	
비뇨 기과	김영수	5586	수	금	소아비뇨, 여성 방광염		
	김세중	5587	월, 화	목	비뇨기 종양(암)		
	인현수	5588	목	월, 화	요로결석, 불임		
	최종보	5587	화, 금	수	폐노장에, 요실금, 남성과학(성기능장애)		
	최민규	5587	토	화, 목	요로결석, 남성과학		
	일반진료	5587	월, 수, 목, 금, 토	월, 수, 금			
재활 의학과	이일영	5795	월, 수, 금		척수손상		
	나은우	5796	화, 목	목, 금	뇌졸중, 뇌손상, 절단자 재활		
	임신영	6440	토	월, 화, 수	소아재활		
5802	일반진료	5795	화	목			
진단사 선과	김선용	5854	월, 화, 목		뇌혈관질환 중재적 치료		
	원재철	5863		월, 수, 금	혈액중재적 치료, 폐혈관질환, 심장혈관질환		
5823	일반진료	5854	수, 금, 토	화, 목			
치료사 선과	전미선	5884	월-토	월-금	종양(부인과, 유방암, 소화기암)		
	오영택	5884	월-토	월-금	종양(두경부, 폐종양, 비뇨기암)		
	강승희	5884	월-토	월-금	종양(뇌종양, 육종, 정위방사선치료)		
혈액과 5939	윤석남	5947	월-토	월-금	핵의학(간단, 동위원소치료)		
	윤준기	5947	월-토	월-금	핵의학(간단, 동위원소치료)		
신약연구 5644 5606	이강중	5645		화			
	박재범	5644		목			
	일반진료	5644	토	월-금			
가정 의학과	김광민	5958	월, 수, 금	화	만성피로, 노화관리, 남성갱년기		
	박색별	5957	화, 금	수, 목	여성갱년기, 스트레스, 가족상담		
	김범택	5957	월, 수, 목	월, 금	비만, 골다공증		
	신상호	5958	목		비만		
	5959	손중천	5958	토	수	갱년기, 금연	
	정유지	5958	화	화			
일반진료	5958	월-금	월-금				
치과	황병남	5869	화*, 목*, 금	월, 화, 목*	인공치아이식, 턱관절장애		
	고석민	5869	월, 화, 금*	월*, 수, 금*	인공치아보철, 틀니		
	이정근	5869	월, 화*, 수, 목*	화*, 수*, 목*	악안면기형, 악안면외상, 잇몸질환		
일반진료	5869	토	월-금	재진환자만 가능			

진료과명 진료시간표	의사명	진료실 전화번호	오 전	오 후	야 간	세부전공	비고
응급 의학과	조준필	6005	월, 수	금	화	외상외과, 응급질환	
	정윤석	6005	화, 목	수, 금	목	독극물중독, 응급질환	
	이국중	6005	금	월, 목	월, 금	외상외과, 외과계 응급질환	

1. 진료시간표는 각 과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는 특수진료입니다.
3. \*는 세부전공만 진료합니다.
4. □은 추가비용징수 선택진료의사입니다.
5. ★는 진료시간이 변경된 의사입니다.
6. 전화문의는 031+219+ 해당 진료과의 번호를 누르십시오.